



성도의 벚 3
1975

영감의 메시지

성경 우리는 완전한 모범을 보이시고 자신을 따르라고 명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내, 친절, 사랑, 용서의 가장 높은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토록 추악한 자의 희생물이 되어 왔습니다. 잣난 아기 때에는 꿈에 나타난 천사의 지시에 따라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의 부모는 그를 애굽으로 피신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생애가 종말에 가까웠을 때 조용하면서도 침착하게 거룩한 위엄을 지니고 운명을 맞았으나 그의 적들은 그의 얼굴에 더러운 침을 뱉었습니다. 이 얼마나 역겨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침착함을 잊지 않고 놀라운 자제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밀어 붙이고 밀치며 뭇매질을 하였습니다. 그는 한 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제력입니다! 얼굴과 몸을 사정없이 구타당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모욕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굳건히 이를 견디어 내셨습니다. 그는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까지도 되돌려 주라는 그의 훈계를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처럼 곤란한 지경에도 그는 폭도와 그들의 지도자들을 피하여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수같은 잔인한 원수의 손에 운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의 욕설 역시 참기 어려웠습니다. 힐책과 비난, 그에게는 가장 소중했던 물건과 사람과 장소와 상황에 대한 모독도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정한 여자라고 불렀으나 그는 침착함을 잊지 않고 견디어 내셨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부인하시거나 항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위증자가 돈을 받고

거짓 말을 해도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의 말을 비꼬고, 그의 가르침을 왜곡시켜 풀이했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뭇매를 맞았고 뭇사람 앞에서 채찍질도 당하셨습니다. 그는 가시 면류관을 쓰는 고통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는 사방에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의 손으로 모든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는 “내 백성에게 왔으되 저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교성 6:21; 요 1:11 참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짚어지고 갈보리 산에 올라가 말로 뭇다 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병정과 비난자들을 내려다 보시며 다음과 같은 불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

위대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용서가 넣는 기적, 279-80페이지)



성도의 벗

월간

순서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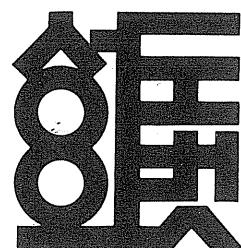
에즈라 데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멜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헨터
고든 비 힙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인 1975년 3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116호
발행인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 74 — 6832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 서울 514091
인쇄인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유 건수

정가
1 권 150원

1 년분(송료포함) 국내 1,200원
일본, 홍콩, 마카오, 중국 7불
필리핀, 월남, 라오스, 태국 9불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14불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근동아시아 18불
선박 3불

- | | |
|--|------------|
| 위대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 스펜서 더블류 킴볼 |
| 2 현대의 예언자가 간증하는
속죄의 희생 | |
| 6 유산의 발견 : 우리를 죽일꺼야 | 모린 우센바하 비쳐 |
| 9 그리스도를 안다는것 | 조지 더블류 페이스 |
| 15 여성의 모든 면을 돌보는
상호 부조회 | |
| 18 부모나 청소년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오늘날의 음악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 래리 배스찬 |
| 20 “아빠, 저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 ” | 게리 제이 쿨만 |
| 21 점 잊기 | 헨리 디 테일러 |
| 22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 |
| 23 예수님 이야기 | |
| 27 더크의 새 축구공 | 레오 디 훌 |
| 30 다윗과 골리앗 | 스펜서 더블류 킴볼 |
| 35 범법자에 대한 우리의
책임 | 엔 엘돈 태너 |
| 40 고결 | 매리온 지 롬니 |
| 43 언덕위의 봉화처럼 | 버크 에이치 피터슨 |
| 46 선교부장 메시지 | 유진 피 틸 |
| 47 내외 소식 | |



제11권 제3호 1975년 3월호

브리감 영

우리의 첫번째 부모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빛은 어떠한 성격을 띤 것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지불해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희생이 없이 이 빛을 갚을 수 없습니다. …

하나님 아버지께 진 이 빛은 인간이 지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상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상에서 죄를 짓고 범법한 자녀에게 “너희가 이 빛을 갚지 못할 것을 알아 내가 희생을 마련하였느니라. 너희가 이 빛을 갚도록 나의 독생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독생자가 그의 생명을 희생하여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 주셔서 이 빛을 갚아 주시지 않는다면 이 빛은 결코 갚아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온갖 지혜가 동원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말형에게 돌아가 거룩한 천사나 해의 왕국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 이 빛을 갚을 희생은 지금 지상에 살고 있거나, 살다가 갔거나, 앞으로 살 사람의 권리나 지혜로는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을 마련해 주셨고, 그의 아들이 빛을 갚아 주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진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설교집, 14권, 71-72페이지

요셉 스미스

인간은 범법으로 중보자 없이는 그의 창조주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었지만 창조주의 위대하고 영화로운 구원의 계획은 이미 그 전에 마련되었으며, 희생이 준비되었습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그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너희가 흙으로 돌아갈찌니…”라는 말이 선포된 이래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의 공덕으로 그만이 구속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회개를 소홀히 여겨 넘겨서는 안됩니다. 매일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합당한 중재자 없이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중재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57-58, 148, 319페이지

존 테일러

물론경 니파이에서 9장에 보면 무한한 속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무한한 속죄가 필요하였을까요? 샘물이 그 근원보다 더 높은 곳으로는 흘러 가지 못하는 것과도 같은 분명한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게 되었으나 율법을 거슬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었으며, 자기 혼자로는 자신을 유익하게 하거나, 타락한 상태에서 자신을 구속하거나 하나님의 면전에 되돌아 갈 수 있다는 희망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타락한 지위에서 그를 끌어 올릴 탁월한 중보자가 필요하였습니다. 이 탁월한 중보자는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어기

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그의 영광과 그의 권세와 그의 권위와 그의 지배권을 모두 소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종교와 속죄, 142-43페이지

월포드 우드럽

우리가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들을 때 이는 아담의 범법을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위 밀하는 원죄란 인간의 행위가 어떠하건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속되었습니다. 인간의 죄 역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대속되었으나, 이는 그에게 전해진 복음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한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밀레니얼 스타, 51권, 659페이지

로렌조 스노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미래의 영의 세계를 기대해 봅니다. 그 행복한 곳에 이르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해의 왕국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성도들에게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일시 됨을 취할 것으로 생각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빌 2:6 참조) 사도 요한도 이에 관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요일 3:2)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3)

하나님도 한때 인간이 현재 존재해 있는 것과 같이 살아 계셨으며,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도 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그렇다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 가는”(빌 3:14)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의 자녀로, 지상의 자녀가 부모를 닮듯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통은 우리에게 경험을 주며, 우리 마음속에 신성함을 쌓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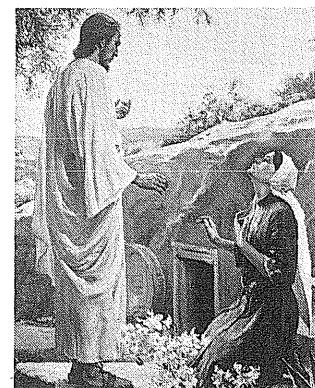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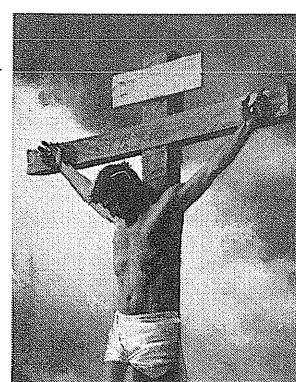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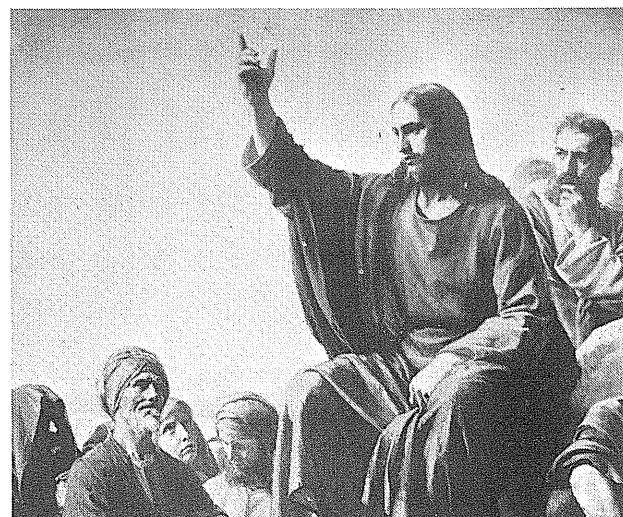
—설교집, 26권, 368페이지

조센 에프 스미스

거룩한 천사가 선언한 복음의 의식에 대한 순종과 회개와 관련하여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가질 때 육신의 사망과 영적 사망에서 구원되는데, 이는 믿는 사람은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의 의식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타락에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우리의 첫째 부모가 빠져 그의 모든 후손이 쫓아야 하며 독생자의 이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영적인 암흑인 사망의 상태에서 영원히 머물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 위대한 모범을 보이셨으며, 나는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가 구속주로 예임된 것 같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예임되었다고 믿읍니다.

—설교집, 23권, 169-70, 172페이지



히버 제이 그랜트

우리는 사람이 임종시에 하는 단순한 신앙의 고백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짧은 시절에 그러한 믿음의 어리석음을 풍자한 만화를 본적이 있습니다. “퍽” 잡지에서 보았다고 기억됩니다.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은행에 들어 와서 돈을 세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돈을 훔쳐 탈아났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한 신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범죄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 참 쉬운 일이구나. 그렇다면 믿어야지” 다음 장면에서 그는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그는 “예수에게로 가는 사람”的 길목에 꽃을 뿌리는 감상적인 여인과 함께 사형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목에 밧줄을 전 채 죽어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천사의 호위를 받으며 하늘로 올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는 돈을 잃고 목숨까지 빼앗긴 선량한 사람이 지옥 불에서 고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총살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은 제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는 지상에 있는 인간의 구속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룩한 생명을 갖고 지상에 왔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우리는 그를 위대한 도덕가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치치 뉴스, 1938년 9월 3일, 7페이지

조지 앤버트 스미스

우리는 아담의 범법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선조 아담이 지은 죄를 대속하여 주었으며, 그는 우리를 지상에서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합당한 때가 이르러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선용할 때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도록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대회 보고, 1926년 10월 102페이지

데이비드 오 맥케이

절정의 때에 모든 인간이 고대하였고 후세 사람에게 행동의 모범을 보인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절정의 때에 세상의 믿음과는 달리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게 된다는 영원한 진리를 선포한 인자가 오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짧은 기간 동안 그는 이 진리를 완전하게 실천하여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는 소유한 땅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머리를 둘 곳조차 없었습니다. …(마 8:20 참조)

그는 이기심을 갖지 않고 봉사하여 불완전하게 사는 사람을 완전하게 살도록 도왔습니다. 장님이나 귀머거리처럼 육신의 장애로 불안전하거나 죄에 빠진 여인처럼 도덕적인 결함으로 불완전한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 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자…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좀더 생각하여 그가 보인 희생과 흘리신 피에 적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의 육신에만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육신이란 인간이 사는 집에 불과합니다. 진짜의 인간이란 이기심과 육욕을 초월한 영으로 자신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영원한 성품인 신앙, 미덕, 지식, 인내, 경건, 형제애, 사랑 등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살아 계시는 동안이나 죽는 순간에도 희생의 율법을 실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상 생활에서 영생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요 12:32)

나는 여기에서 그가 인간을 타락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이유 이외에도 피를 흘린 이유를 어렵듯이나마 이해할 것 같읍니다. 나는 그가 이웃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살으셨고, 죽음을 통해 세상적인 모든 요소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무덤에서 일어나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으로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큰 감명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생의 보화, 277-78페이지

조셉 월딩 스미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알려진 구원의 계획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천국에서 채택되었읍니다....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여 세상에 고통과 죽음을 가져 오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이를 맛보게 한 것도 다 이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읍니다...

타락은 사망을 낳았읍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할 상태에서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 우리 몸이 흙이 되고, 영은 사탄의 지배 밑에 들어가 수난당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구속받아 불사불멸의 상태로 부활합니다. 또한 인간은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승영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속죄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말을 종종 듣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은 인간이 속죄의 영향을 받지만 그 대다수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못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 7:14) 우리가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자에게 약속된 충만한 삶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교리, 1권, 121-23, 125페이지

해롤드 비 리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셨읍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 보라, 이는 주 너희 구속주께서 육신으로 죽음을 겪으셨음이니, 그런고로 만인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오게 하시려고 만인의 고통을 맛보셨고, 회개하면 만인을 자기에게 이끌어 오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느니라. 회개한 자를 보시는 주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교성 18:10-13)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되돌아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문을 여신 것입니다

다.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천국에서 마련되었으며, 누가 속죄를하게 되며,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이 누구인가도 그곳에서 알려졌읍니다. (계 13:8 참조)

구세주가 그의 고통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뿐입니다. 그가 받는 고통이 너무도 커기 때문에 “고통으로 멀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피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려서려고까지 하게 하였지만”(교성 19:18) 그는 결국에 가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그의 복음을 받아들여 영원히 그의 아들과 딸이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려한 고통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와 젊은이 (1945년판), 120-21페이지

스펜서 더블류 킴벌

그리스도가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는 회개하고 그에게 오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아셔서 세상의 죄에 대한 벌을 혼자 짊어지셨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위대한 회생과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배운방역한 사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다 돌아가셨으나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의 모든 고뇌와 고통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훌륭한 원리의 하나입니다. 회개가 성스러운 원리인 것처럼 용서도 성스러운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없었다면 회개를 외칠 근거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 때문에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하나님의 권고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용서가 낳는 기적, 132, 145, 338페이지

서울 스테이크 대회

서울 스테이크는 4월 대회를 맞아 회원, 구도자 여러분을 대회에 초청합니다.

장소 : 서울 제4 와드 노천 광장
일시 : 1975년 4월 20일(일요일) 10시
주제 : “가정은 지상의 천국”



유산의 발견 “우리를 죽일꺼야”

모린 우센바하 비쳐 글
프레스톤 하이셀트 그림

1833 미주우리주 인디펜던스에서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매리 엘리자베드 코린스의 나이는 15세였고, 동생 캐로라인은 13세였습니다. 개종자들이 그들의 새로운 시온으로 믿고 모여 들기 시작한 그곳에서의 한 해도 평화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 새로 도착한 사람들이 대개는 궁핍하였는데 비해 앤거논 걸버트 아저씨의 상점은 그럭저럭 잘되는 편이었습니다. 잭슨군 전역에 주택이 들어서게 되었고 농지의 정지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신문까지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리암 더블류 펠프스 형제는 그의 이층 집에 사무실과 인쇄소를 차렸으며, 미주우리주의 성도와 전 교회에 배부되는 이브닝 앤드 모닝 스타지가 정규적으로 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

가 펠프스 형제의 인쇄소에서 인쇄되어 곧 세상에서 읽히게 된다는 기쁜 소식이 나돌았습니다.

매리 엘리자베드는 계명의 책이 새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이미 일부 인쇄되어 제본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종이 더미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올리버 카우드리와 다른 형제들이 기록된 계시에 관해 진지한 태도로 이야기 하여 참석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영을 느꼈으며, 이들이 이 성스러운 기록에 관해 방언으로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때가 1833년 7월이었는데, 그곳의 구정착민들은 물돈들이 집을 짓고 크게 번창하는 것을 보고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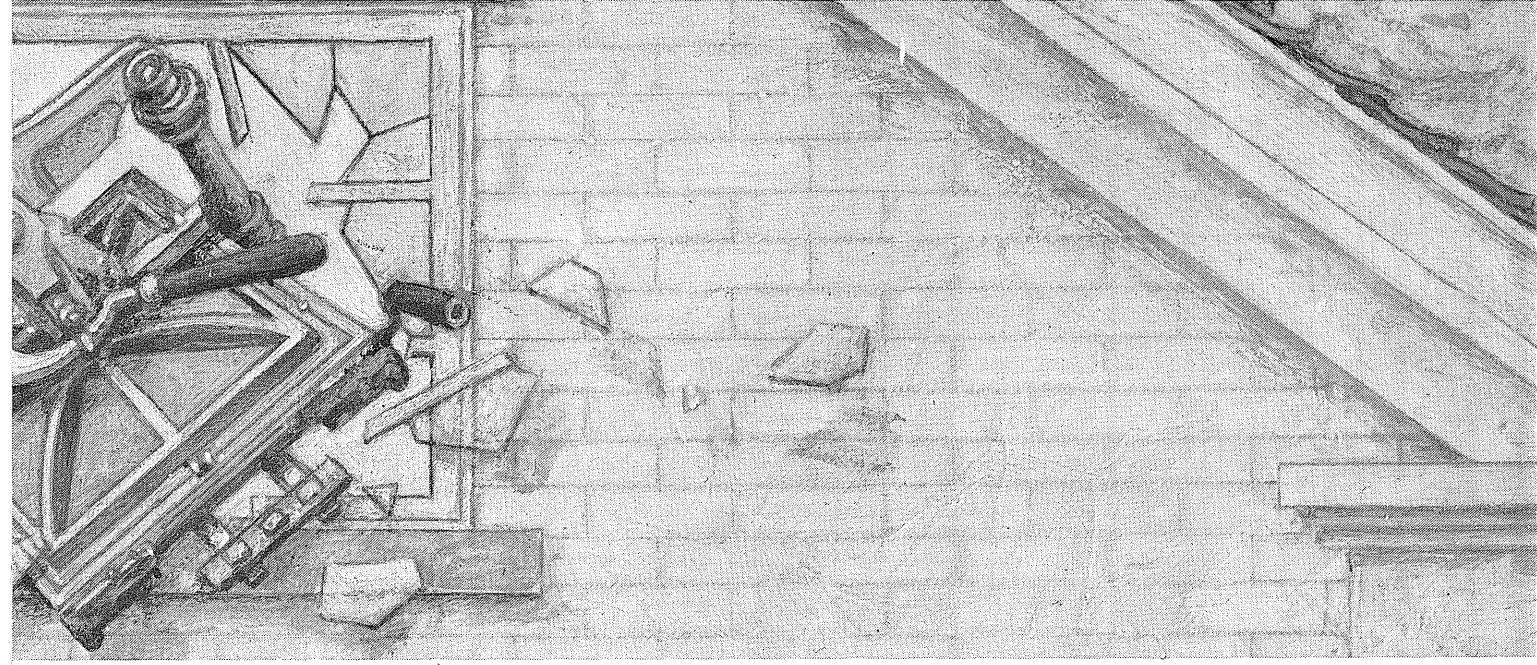
물돈인들의 단결심과 그들의 특이한 종교에 이질감을 느낀 미주우리시민들은 그들이 그곳에 온 첫해부터 잭슨군을 떠나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해 7월 펠프스 형제가 스타지의 사설에 쓴 글이 구정착민들을 자극하여 미주우리인들의 분노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매리 엘리자베드와 캐로라인은 구정착민들이 재판소에서 모임을 갖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돈에 대해 비난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곧 물돈이 가족을 데리고 새로 지은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돈의 지도자인 펠프스 형제와 엘거논 걸버트 아저씨가 그 모임에 불려가서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커틀랜드에 있던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연락하여 그곳을 떠나도록 하였으나 삼개월의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의가 받아들여질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10일간의 여유를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부되었습니다. 십오분 내로 그곳을 철수하라고 명하였으나 채 그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폭도들이 그 모임 장소에 뛰어 들어 난장판을 만들었고 펠프스 형제의 인쇄소를 둘러쌌습니다.

펠프스 자매는 폭도들이 에워싼 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있었답니다. 병든 아기를 팔에 안은 펠프스 자매는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인근 숲 속으로 피해 숨었습니다. 매리 엘리자베드와 캐로라인은 담장 뒤에 숨어서 폭도들이 집안으로 들어 가 가구를 끌어내는 것을 숨을 죽이며 바라보았습니다. 폭도들은 이층에서 값진 인쇄기를 발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기계를 꺼내 창문 밖의 길로 집어 던졌습니다.

이때 조소에 섞인 목소리로 “물돈 계명이 있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계명을 인쇄한 종이 뭉치를 질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매리 엘리자베드는 계시의 책을



전지기로 마음 먹었읍니다. “우리를 죽일 거야” 하며 캐로라인이 경고를 하였지만 그녀는 매리 엘리자베드가 마음을 굳게 먹자 어쩌는 수 없었읍니다.

폭도들은 걸쪽으로 등을 돌리고 접 뒷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소녀가 숨어 있던 곳에서 뛰어 나와 양팔에 종이를 끌어 안고 돌아가려는 순간 폭도들의 눈에 띄고 말았읍니다. “멈춰”하며 그들이 소리를 질렀으나 이 두 소녀는 온 힘을 다해 뛰었읍니다. 두 명의 남자가 그들의 뒤를 따랐읍니다. 담장을 뚫고 들어간 이들은 그들의 키를 넘는 옥수수 밭으로 달려가 몸을 숨겼읍니다. 그 남자들이 뒤를 쫓았지만 두 소녀는 그들이 가지고 온 값진 인쇄물을 땅에 내려놓고 깔고 앉았읍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렸으나 키가 큰 옥수수가 그들을 숨겨 주었읍니다.

마침내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리 사라졌으며, 매리 엘리자베드와 캐로라인은 차가운 땅에서 일어나면서 안도의 숨을 쉬었읍니다. 다시 팔에다 종이 뭉치를 안고 그들은 밭을 빠져 나오기 시작했읍니다. 그러나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몰랐읍니다. 옥수수가 너무 높이 자라 아무것도 볼 수 없었으며 그들이 어느쪽에서 왔는지도 알 수가 없었읍니다. 아무 방향으

로 갔다가는 폭도를 만나게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잠시 걸음을 멈추었읍니다. 그때 옥수수 사이로 큰 나무의 꼬매기가 보였읍니다. 매리 엘리자베드는 그 나무를 보아 방향을 잡고, 폭도가 있는 곳을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곧 그들은 낡은 통나무 마굿간까지 왔읍니다. 이상한 소리에 놀란 그들은 조심해서 다가 갔읍니다. 여기서 그들의 잠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잘 나무 가지를 모아 들고 오는 펠프스 자매와 아이들을 보았읍니다. 이들을 만나 안심한 두 소녀는 펠프스 자매에게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온 인쇄물을 주었읍니다. 펠프스 형제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 인쇄물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아셨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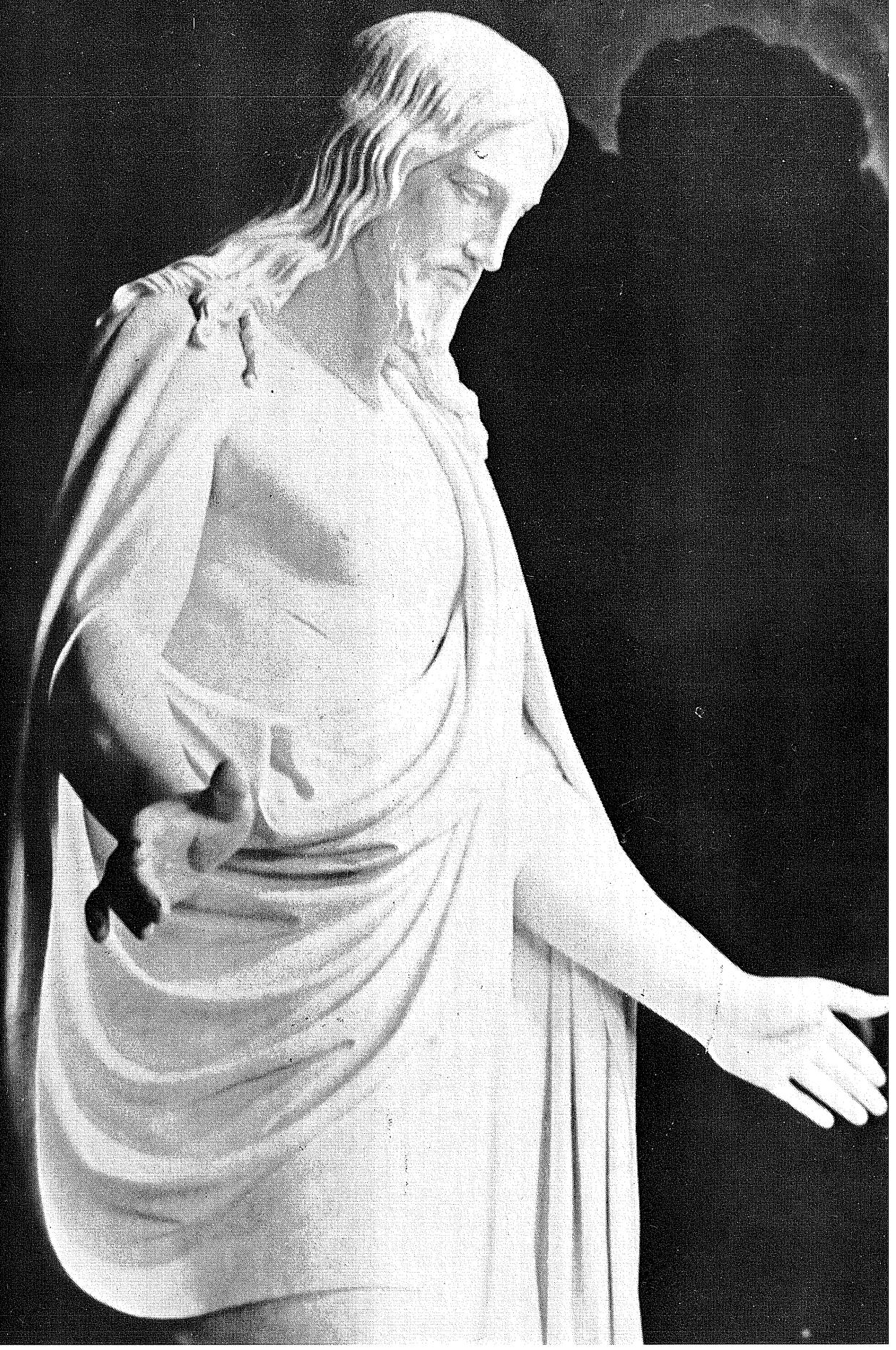
그러나 매리 엘리자베드가 자기가 구해 온 계시를 읽고 싶어했는데 한 페이지를 가질 수 없다고 화를 낸 데 대해 그들은 미안함을 느꼈읍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읍니다. 그녀가 가지고 온 페이지와 다른 것이 합쳐졌고, 올리버 카우드리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책을 만들어 그녀에게 한 권 주었읍니다. 이 년 후에 작은 계명의 책에 담긴 계시가 다른 것이 추가되어 교리와 성약이라는 이름으로 재발행되었읍니다. 성스러운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한 소녀의 용기가 실로 위대한 일을 이루

어 주었읍니다.

주석 : 본 이야기는 다음 자료에서 발췌되었다. 매리 이 라이트너, 자서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파, 교회 도서 보관소,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 비 에이치 로버츠, 미주우리주 박해 시절(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1900년), 82-94페이지 ; 피터 크롤리, “뉴욕, 오하이오주, 미주우리주에서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저서 목록”, 브리감 영 대학 연구지 12호(1972년) : 480-486페이지.

교회 역사파의 화강암 기록 보관소에는 손바닥 크기를 넘지 않는 작은 책 한 권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읍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 교회의 행정에 관한 계명의 책”이라는 서두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160페이지에 가서 돌연 끝이나 있읍니다. 현재 쓰고 있는 교리와 성약의 전신인 이 책은 어린 매리 엘리자베드 코린스와 동생 캐로라인이 아니었더라면 결코 보존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책에는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의 서명이 들어 있읍니다. 그는 이 책을 1854년 7월 19일 교회 역사 편찬 위원회에 기증하였읍니다. 鱷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조지 더블류 페이스

SE 나는 열 아홉 살 때 물본경에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뒷 주머니에 물본경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다루는 제목을 쓰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만 해도 두려움이 앞섭니다. 실은 내가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고, 그는 무한한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께서며 그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아무런 의문도 없었을 것입니다.

완벽한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는 우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놀라운 방편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목적 즉 원리나 의식의 목적이 여려분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심오한 방법으로 그에 관해 설명해 주는 것임을 알게 한 청소년기의 준비와 훈련에 감사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서는 활동적이었지만 성장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강한 열의를 갖고 영적인 일을 추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어째서 참된지를 알고자 했지만 그것을 증거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나는 열 아홉 살 때 물본경에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뒷 주머니에 물본경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꺼내 읽었습니다. 내 기도의 간절함이 전파는 달리 바뀌었고, 나는 매일, 혹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책에 대한 간증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정독을 하고 나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영적인 일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인간이 존재해야 하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강하게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인간이 준비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책을 읽고 있는 동안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진 날이 있었습니다. 나는 개천을 연결하는 다리 위에 앉아서 장화를 식히려고 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위를 쳐다 보면서 나는 내가 읽고 있던 말씀의 영적인 느낌을 마음속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은 내가 읽고 있던 예언자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나에게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나는 니파이가 참으로 주님을 보고 대화하였으며, 그가 주님의 선하심을 입고 그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그의 생활이 구세주의 영향력으로 크게 바뀌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도 주님을 알 수 있고, 나도 역시 복음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니파이처럼 구세주의 권세로 영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주님의 영으로부터 우리도 놀라운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과 구세주를 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더욱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은 여려분과 내가 개인적으로 간절히 구한다면 그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몇 달 후에 나는 선교사로 나갔으며, 그때 나는 그곳에서 주님의 선택된 종들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이해하고 있는 바와 그에 대한 느낌을 말했습니다. 그는 내게 속죄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나는 성령이 불같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 나도 주님을 알 수 있다고 내게 증거해 줌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와 긴밀한 관계를 갖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결혼한 첫해 어느 봄날 나는 연차 대회의 토요일

아침 모임 방송을 들으려고 들에 나갔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간방은 작았으므로 나는 다림질판 옆에 쭈그리고 앉아 아내와 함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님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구세주에 대해 증거 할 때 나는 클라크 부대관장이 정말로 구세주가 누구인가를 알고 계시다는 강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내가 배우게 된 중요한 일의 전초가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과 의식과 복음 원리가 어떻게 살아 계신 우리의 구세주 안에서 나타내지고 구체화되고 상징화되었나를 알게 되었을 때 더 큰 의미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신권과 복음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여러분과 나에게 구세주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를 알아야 하며 그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뜻깊은 방법으로 그를 알고 그와 대화하겠다는 소망을 품고 교회 활동과 경전 공부 기도에 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 주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 중 하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해 무슨 뜻일까요?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빛을 들어 세상을 비치게 하라. 보라 나는 너희가 치켜 들 빛이니...”(니삼 18:24) 우리의 청소년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 신전 사업, 선교 사업 등에서 반영되는 모든 목표가 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된 것이라고 하는 점도 특기 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려한 목표가 있을 때 그의 성품을 닮은 남녀를 배출해 내기 위해 우리의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한 다음과 같은 말은 바로 그런 것을 뜻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요셉 스미스가 그리스도에 대해 한 다음과 같은 놀라운 간증은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교성 76:22-23)

나는 구세주에 대하여 간증하는 예언자들의 말씀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간증에서 우리가 모두 그에 대해서 잘 알아 우리의 가르침이

나 복음 생활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분명하고 영향력 있는 복음의 메시지에 많은 사람이 마음을 돌리게 되도록 하라고 호소하는 외침의 소리를 듣읍니다.

브리감 영은 다음과 같은 말로써 구세주에 관해 알아 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는 가장 크고 중요한 요구 사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를 찾고, 그에게 매달리며, 그와 벗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령이신 구세주와 대화의 길을 여십시오”(설교집, 8권, 339페이지)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를 그에게 이끌어 주는 성스러운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구세주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구세주가 존재하였다는 간증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요 17:3)

이제 나는 구세주를 아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여섯 가지 점을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경전이 말하듯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단순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 의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그는 그의 아버지가 지녔던 것과 같은 권리와 예지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단 메시지, 4권, 29-30페이지)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신학연구원 대학부 책임자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해 주는 좋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나는 기독교계에는 구세주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의 신앙대로 생활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는 걸 압니다.

어느 저명한 목사가 대학의 종교 강조 주간을 맞아 초청 연사로 초빙되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훌륭하였습니다. 그는 해박한 경전 지식을 입증해 보였고, 구세주를 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연설이 끝나고 반대 토론회가 개

최되었는데 여기에도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몇몇 지역 목사와 나는 초청 연사와 함께 기독교를 옹호하는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계단을 내려 가면서 반대 그룹의 대표자들을 보았고, 담배 연기 자욱한 속으로 들려오는 큰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오늘 혼 좀 나겠는걸！” 모임이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나는 내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기독교를 옹호하려는 데는 관심이 없고 경전 내용의 토론에 익숙해 있음을 나타내 보이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상 나와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처럼 기독교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려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나는 다소 놀라움에 싸여 “침묵은 금”이라는 격언만을 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사태가 심각하게 되어가는 것 같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손에 마이크를 꽉 잡고 나는 10분내지 15분 정도 주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절대 진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남녀가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으며, 그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지상에 오시며,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지상 생활에 대해 보고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주님의 영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강한 간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배도에 관해서 말했으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지상에 세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도 말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너무도 강하게 임하였고 대답하게 말했기 때문에 아빈아다이가 된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간증을 전하고 말을 마쳤습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 두 시간 동안이나 이들은 기독교를 비판하였지만, 이제, 박수로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군요”라고 말하는 듯한 태도로 환성을 올렸습니다.

내가 구세주의 신성한 사명을 강조하고 간증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학생이 초청 연사에게 “연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한 분임을 믿읍니

까？”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저명한 목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띤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한 분이라는 걸 믿고 싶지 않습니다. 믿었다간 그가 나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게 되거든요！” 그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 하였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엔 그리스도보다도 더 훌륭한 생활을 한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그를 나의 구속주로 삼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요셉 스미스에게 세상의 교회가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심히 멀도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요셉스미스 2서 : 19)고 하셨다는 말씀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주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를 통하여 기도할 수 있고,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듯 기도로써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 말씀 순서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때 내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파연 너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알고 있느냐?”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나는 나의 부친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아버지를 알게 해주었던 과거의 경험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농장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했던 것의 대부분이 어린 아기가 하는 것 같은 시시한 이야기였지만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주의깊게 귀담아 들어주셨고 내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의 대화도 더 깊어 갔습니다. 매일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일에서 큰 기쁨을 찾았으며, 대화가 끝나는 게 항상 아쉬웠습니다. 사실 아버지와 대화를 갖지 못하고는 하루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프로보에서 있었던 신학연구원 대학부 모임을 마치고 나는 아이다호로 차를 몰아 부모님을 뵙고 이를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떠나기 전에 나는 아버지와 마당으로 걸어 나와 내가 가진 걱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큰 위로가 되는 좋은 영적인 경험담을 들려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나눈 다음 나는 차를 몰고 쿨로라도로 향하였습니다. 나는 차를 타고 가면서 아버지가 그처럼 귀하고 성스러운 경험담을 들려 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수년 동안 깊은 우정의 대화를 통해 놓은 기초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와이오밍 주 어느 먼 도시로 차를 몰고 가던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큰 목소리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불과 몇분만에 나는 성령의 힘을 강하게 느꼈으며, 지상의 아버지와 나눈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옆에 가까이 계신 것같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느 훌륭한 성도의 집에서 아침 식사를 들고 있을 때 내게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밤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전화였습니다. 나는 전날밤의 경험을 다시 회상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많은 경험과 대화가 아버지와 나 사이에 큰 사랑의 유대를 이루어 놓았음을 재인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과 관계를 맺는 데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더 그에게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그와 복음의 원리를 우리의 생활에 끌어들이면 들일 수록 그와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지상의 아버지와 갖는 관계는 우리가 주님과 가질 수 있는 관계를 그대로 상징해 준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째,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이 왜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에 대해 그토록 자주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니파이는 구세주의 희생이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니이 2:7)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만 율법의 목적에 답해 준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상한 심령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그려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구세주가 베푸신 일을 알므로써 가능할까요?

우리가 복음의 첫째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때 강한 신앙을 요구 할 수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그가 보인 구속의 희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성 76:41 참조)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성령의 권세를 통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으신 구세주의 번뇌와 슬픔을 느끼면서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산상에서 일어난 일을 알게 될 때 오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잘못과 죄에 대해 애통하게 하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보이신

구세주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는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주고, 신성한 힘을 얻게 하며, 시온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해준 사건은 그것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나는 한때 그리스도의 속죄와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였으며 상당히 연구도 하였습니다. 점차로 나는 그 큰 사건이 뜻하는 바를 알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앤마와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구세주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알았습니다. 나는 벨빈 제이 벨라드 장로가 꿈에서 본 경험(브라이언트 에스 힙클리, 벨빈 제이 벨라드, ...의 십자군, 북크래프트사, 1966년, 66페이지)을 통하여,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 구세주에 관한 시현에서, 그리고 해롤드 비 리대관장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이러한 관계를 느꼈습니다.

“대회를 마치고 일주일이 되던 어느날 나는 구세주의 생애에 대해서 행할 라디오 방송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때 나는 다시 그의 생애와 십자가에 달리신 일과 부활에 관해 읽으면서 그 일들을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은 기록된 책을 읽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실은 나는 실제로 그곳에 가 있던 사람처럼 분명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일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밝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해롤드 비리, “거룩한 계시”, 올해의 말씀, 브리검 영 대학, 1952년 10월 15일, 10페이지)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상상적인 경험을 마음속에 그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경전을 상고하고 마음을 다해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죄가 없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생활에서나 혹은 교회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계시를 받지 못하거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성신으로부터 나오는 충만한 권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노스처럼 여러분도 완전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영의 굽주림과 갈급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머리에 손이 얹혀지고 축복의 말씀이 들려 올 때 성령으로 침례 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겸손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죄사함을 받게 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에게 보다 실감나게 속죄를 생각하게 해

주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체명을 어겼을 때 구세주와 여러분의 생활을 비교해 보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자기가 죄를 부끄럽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자기를 매우 괴롭힐 것입니다. 그 죄가 모두 구세주 앞에서 되살아 오며, 주님이 여러분의 약점과 불순종을 모두 보셨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이겠습니까? 특히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보상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 때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받은 고통이 너무도 심하였기 때문에 온몸에서 피땀을 흘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가 받은 고통은 바로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개한 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변하였다느는 느낌을 가집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엘 36: 20-21 참조) 우리는 이 변화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온 고통과 괴로움을 기꺼이 받으신 그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라고 알게 됩니다. (모 5:2 참조).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째, 주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모든 인류를 거듭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위치로 옮겨놓을 수 있다는 복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공부하면 할수록 거듭난다는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벧후 1:4 참조) 그것은 성신을 통해서 그의 성품과 특질을 우리에게 흡수하여, 점차로 우리의 삶에 성신이 강하게 임하게 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더욱 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형상대로 재창조됩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그의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엘 5:14 참조)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랑과 인내와 친절과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약점이 있고 개성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과 내가 완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성이 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기구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는 힘은 그를 믿는 강한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합니

다. 그러므로 주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나파이는 다음과 같은 힘찬 간증을 들려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니일 3:7)

오늘날 복음대로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의 큰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식이 우리의 생활 깊숙히 파고 들어 많은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을 복음을 통해서는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기가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을 행하도록 요구하셨을 때 우리가 그를 완전히 믿고 그가 요구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그일을 성취할 때쯤이면 우리는 그가 누구이며, 그가 위대한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방법이든 기적을 통해서든 주님께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그의 사업을 이룰 수 있게 도우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의 선하심을 느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간증에 대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가 사랑에 찬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이에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 주시려 하신다는 것을 아는 일은 참으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경전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부드럽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말해 주고 계십니다. 감람산에 오르셔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 23:37) 나는 그가 팔을 벌려 우리를 감싸 주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알아 보시고 걱정, 슬픔, 근심을 제거해 주시며, 마음속에 편안, 기쁨을 넣어 주고 우리가 그의 보시기에 귀한 자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려 하십니다.

나는 육신의 아버지와 이러한 관계를 가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나를 팔안에 안으시고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잠시 집을 떠나가 있다가 돌아와서는 양팔을 벌리고 아버지와 서로 꼭 껴안는 것이 내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한 경험 속에서 누리는 우리의 사랑의 유대가 굳게 결속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매일 정규적으로 그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주일학교에 가기 전에 어린 아이들이 좀 다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열 네 살 먹은 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다른 아이들은 “말다툼을 했는데 기분이 몹시 나쁜가 봐요. 집에 있어요”하며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갈 차비를 갖추었으나 나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 갔습니다. 성격이 매우 민감한 딸이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팔을 벌리고 딸 아이를 꼭 껴안아 주며 내가 그녀를 참으로 사랑하며 모두가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큰 활력소가 되어 줍니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극진하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한다면 나는 그러한 관계가 성인이 되어서 더욱 깊어지며, 자녀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 와 그를 이해하는 아버지의 부드러운 손길이 필요할 때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준다고 믿습니다.”(처치 뉴스, 1971년 7월 17일, 2페이지)

며칠 전에 한 숙녀가 사무실로 찾아 왔습니다. 그녀는 멋진 옷에 단정한 차림은 하였으나 자존심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외롭고 불행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 걸어 들어 오면서 사무실 벽에 걸어 놓은 우리 아이들 사진을 보고 “페이스 형제님의 자녀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렇읍니다”라고 나는 대답하였습니다.

“사랑하고 계시죠?”

“물론이죠”

그녀는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녀들도 형제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나요?”

“네, 안다고 믿어요. 난 매일 팔을 벌리고 그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해 주지요.”

그녀는 또 물었습니다. “페이스 형제님, 저는 누

가 나에게 팔을 벌리며 사랑한다고 말해 준다면 어쩔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보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그녀를 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구세주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자매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우리에 대해서 그가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행동으로 알 수 있지요. 나는 자매님에 대해 그처럼 깊은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이 구세주로부터 왔다는 걸 압니다.”

성령의 가장 큰 은사 중 하나는 사랑 곧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느껴볼 수 있는 길은 그가 인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데 있읍니다. 브리감 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등 의식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속된 사람이라 불리워 마땅하다.”(설교집, 9권, 124페이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나라 다른 사람의 삶이 값지다는 것을 알아 우리가 지닌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회복된 교회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는 이 교회에 거룩한 원리와 의식이 있고,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일어나 구세주와 같이 될 수 있게 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세주가 외친 다음과 같은 말의 참뜻을 알도록 강력하고 힘차게 그리스도를 증거해 준 예언자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를 중보해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그에게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인봉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존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38-39) ■

조지 더블류 페이스 박사는 브리감 영 대학 교회사 및 교리 담당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론 이스트 스테이크, 제5와드에서 주일학교 교사와 가정복음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여성의 모든 면을 들보는 **상호부조회**

벨 에스 스파포드
본부 회장과의 대담



스파포드 자매는 1945년부터 1974년까지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직을 맡아 봉사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상호부조회를 위해 보인 혼신적인 노력으로 그녀는 그 조직의 합당한 대변인으로서 존경을 받아 왔다. 이제는 상호부조회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그녀가 전하는 훌륭한 메시지를 본지에 실리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스파포드 자매는 1974년 10월 상호부조회 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이 직에 부름을 받아 봉사하면서 이 조직의 위대함과 의의 힘이 이곳에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의 딸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조직으로 상호부조회를 좋아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편집자



지금으로부터 133년 전인 1842년 3월 17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상호부조회가 여성과 그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 조직되었습니다.

질문 : 상호부조회는 흔히 나이가 든 자매들을 위한 조직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상호부조회의 회원은 누구인가요?

스파포드 자매 : 상호부조회는 18세 이상의 자매가 회원이 됩니다. 18세는 안되었지만 결혼을 하여 자녀를 둔 자매는 상호부조회에서 책임을 받게 됩니다. 상호부조회는 교육 및 가사 프로그램과 음악, 사교 및 오락 활동도 제공합니다. 상호부조회를 통해 여성에게 힘이 미치지 않는 면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질문 : 상호부조회는 다른 여성 단체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스파포드 자매 :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직 구성이 다릅니다. 대개의 다른 여성 단체는 역원을 선출하지만 우리는 신권에 의해 부름을 받습니다. 다른 단체는 정관이나 내규에 의해 운영되지만 우리는 예언자의 지시에 따라 운영됩니다. 상호부조회가 처음 조직되었을 때 자매들은 요셉 스미스에게 정관과 규례를 만들어 제시했었습니다. 그는 자매들의 노고를 칭찬하였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더 훌륭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호부조회가 신권의 지시를 받아 조직되었을 때 예언자는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단이 정관의 역할을 하게 하십시오. 그들의 결정은 윤법이 되며, 또한 그것에 준하여 행동해야 합니다…회의록은 다음 일을 행할 근거가 되는 전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켜져야 할 정관이요 규칙입니다.” (상호부조회 역사, 1842-1966, 18페이지)

이런 점이 일반 여성 단체와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여성 단체에서도 그들을 지도하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는 계시로 받은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여성 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확고한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원을 선거하는 데 심한 경쟁을 하나 상호부조회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훌륭한 자매가 자기는 와드에서 상호부조회 회장이 되고 싶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그런 뜻을 말했다고 회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름은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역원은 신권 지도자에 의해 임명됩니다.

질문 : 지난 수십년 동안 상호부조회와 관계를 가져 오시면서 조직이 과거에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파포드 자매 : 나는 상호부조회가 조직된 이래 전세계의 모든 나라의 사회, 경제, 산업, 교육의 면에서 일어난 큰 변화가 가장 괄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성의 지위에 관한 변화처럼 뜻깊은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상호부조회가 조직될 당시만 해도 여성의 활동 범위란 가정, 가족과 소단위의 지역 봉사 기구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성의 활동 범위는 우주 만큼이나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뜻과 준비만을 갖추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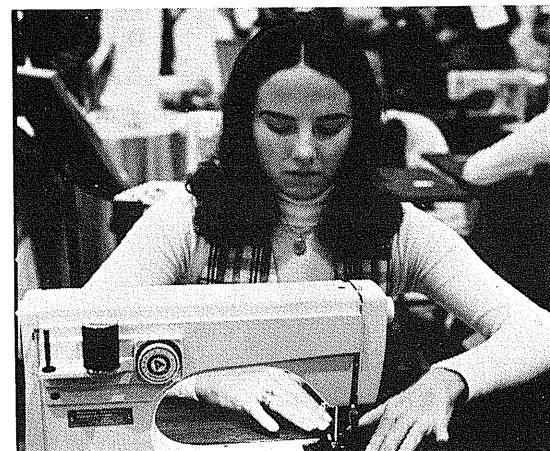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변화속에서도 상호부조회의 조직 구조나 설립 목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이해해 온 교회의 프로그램이 각 시대 여성의 요구에 맞게 조정되어 왔을 뿐입니다.

수십년 동안 상호부조회는 진리가 변함이 없듯이 그 목적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부 시절의 자매들에게 소중했던 목적은 오늘날 전세계의 자매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상호부조회의 기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상호부조회에서 수년간 일해 왔지만 매일 그 위대함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질문 : 오늘날 말일성도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스파포드 자매 :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여성의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여성은 남편과 가족이 있고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여성이 갖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온 여성은 모두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라도 주님께서 발전시키기를 바라시는 무한한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여성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란 무엇인가요?



스파포드 자매 : 어머니는 가정에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르침과, 더욱 중요한 것으로, 자신의 태도를 통해 자녀에게 주님을 사랑하며 신령을 존중하며, 가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평화롭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끊임없이 성신을 동반자로 삼고 있는 가정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질문 : 자매가 와드나 지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스파포드 자매 : 자매들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로는 전통적으로 볼 때 상호부조회나 청녀회, 초등협회의 역원직을 맡아 봉사하거나 서기 일을 맡거나 보조 조직에서 교사 일을 맡아 봉사하는 것 등을 크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매가 와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공헌은 자선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언제나 나는 방콕의 경직률 공장을 방문하여 색실로 천을 짜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계의 꼬배기에는 아래의 천과는 다른 색으로 물들은 명주실이 실패에 잡겨져 있었고, 이것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아래의 실과 섞여 천을 짜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저게 뭐죠. 저건 다른 명주실인가 봐요”라고 물었습니다. 실을 짜면 직공은 “네 다르지요. 특별한 실이지요. 명주천에 광택과 힘을 주는 실이랍니다. 타이 명주가 깊진 건 저실 때문이죠”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자선 봉사 활동이 교회의 자매, 특히, 젊은 자매와 연로한 자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광택과 힘을 주게 됩니다.

질문 : 젊은 자매들도 특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파포드 자매 : 물론이죠. 그들은 연로한 사람이나 의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지요. 노인을 찾아 가서 “대신 편지를 써드릴까요?”하고 제의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저 찾아만 주는 것도 의료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빨래를 해주거나 다림질을 해주는 것은 참으로 큰 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연로한 사람이나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봅니다.

질문 : 혼자 되신 분에게 주는 특별한 권고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스파포드 자매 : 제 어머니도 일찌기 혼자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찌기 세상을 떠나셔서 어머니 혼자 일곱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셨고 두 딸을 교육시켰지만 가정을 떠나서 일하신 적도 없었어요.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도 좋은 기회는 있습니다. 혼히 혼자서 자녀를 기르게 되는 미망인들은 “내게는 가족의 요구를 잘 들어 줄 큰 책임이 있지. 우리에게 항상 권고를 해주는 감독이 계시고, 우리를 도와 주는 가정 복음 교사가 있고, 자녀의 의복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는 상호부조회 회장도 있지. 우리는 독립심을 가진 강한 가족이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대

신 자신을 부담스럽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질문 : 낙태, 산아 제한, 여성 해방, 가정을 떠나 직업을 갖는 문제 등으로 고심하는 여성들에게 어떤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스파포드 자매 : 여성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침을 교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들이 그러한 지침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시키는 점입니다.

직장 여성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이란 언제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자녀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일해서는 안됩니다. 사랑이나 안정감과 같은 것은 돈의 가치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질문 : 다음 해에 상호부조회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없으신지요?

스파포드 자매 : 세 가지의 주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가 간증을 키우는 일입니다. 교회의 여성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바는 모두가 다소 시련을 겪게 마련이므로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간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자선 봉사가 상호부조회의 기본 사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자선 봉사란 간증의 표시라고 봅니다.

둘째 목표는 자매들간에 사랑과 이해심을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강한 복음의 간증을 가진 90만에서 100만에 이르는 자매가 교회의 지침에 따르고, 국경을 초월한 자매애로 둥쳐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금년의 문화의 정수란 공파는 이러한 자매애를 위해 마련되었음을.

세째 목표는 여성의 인생의 실질적인 제문제에 부딪쳐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돋는 일입니다. 나는 가정 관리의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법, 사고 방지 프로그램을 맡아 수고하는 형체를 지원하는 법 등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양 공파나 일모임 같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질문 : 어머니 교육 과정의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스파포드 자매 : 자매들은 이 공파를 매우 좋아합니다. 어머니 교육 공파가 상호부조회 육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육아 원리를 배우면 야외에서 훈련을 받을 때처럼 이를 곧 실체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질문 : 자매님께서는 상호부조회를 관리해 오시면서 가정이나 교회의 부름에 충실히 교회의 자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떠한지도 원리를 터득하셨습니까?

스파포드 자매 : 내가 배운 한 가지 원리란 교회가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교회의 부름을 이해하겠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교회는 우리가 또 다른 임무를 맡아서 일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순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나 청소년지도자로서 여러분은 오늘날의 음악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래리 배스찬

성도인 1970년 12월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인간의 능력은 언어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음악은 영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나 파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일 성도로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음악을 선정함에 있어 복음의 원리를 적용하고 성령의 인도를 간구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권 공보, 1970년 12월, 10페이지)

유행 음악이 젊은이들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상호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유행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지도자들은 피상적인 면만을 들어 이에 관해 토론하려고 합니다.

유행 음악에 관해서 효과적으로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유행 음악에 대해 알아야 하며, 왜 젊은이들이 이에 이끌리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음악이 복음의 원리와 일치되지 못한다고 하여 꾸짖을 때 왜 일치되지 못하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다음에 그러한 곡을 선정한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행 음악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악을 알기 위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듣고 평가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도울 수 있는 점

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그 이유를 알 수 있으며, 그곡의 성격과 가사도 알게 됩니다. 이 일은 개방된 마음을 갖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유행 음악은 권장할 만한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즐겨 부르는 음악은 지식과 활력을 대변해 준다고 여겨집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사회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은 서로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공동의 경험을 마련해 줍니다. 그들의 친구들은 그들이 이 노래를 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나 이 노래를 들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이 문제가 그들에게는 심각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오늘날 유행 음악이 이 삼십 년 전보다 더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을까요? 그 한 가지 이유는 사회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책이나 잡지, 극장 그리고 물론 음악 등을 포함한 대중 오락 매체에 점차로 인기 유행 음악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를 극성스럽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 예로 오늘날 젊은이들의 도덕 표준은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괜찮다”는 행동 규범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오늘날 모든 오락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행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환각제 복용, 도덕 표준의 포기, 지도자에 대한 반항, 이기심이나 욕구

역제에 대한 불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의 젊은이들이 이 표준에 따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난 몇년 동안 이러한 표준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위 “록 뮤직”이라고 부르는 유행 음악이 모두 이와 같은 사조를 조장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로서 우리가 갖는 목적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음악을 택하고 나쁜 음악을 거부하도록 가르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공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장 건전한 유행 음악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노래의 가사나 공연의 취지나 청중의 반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사를 들음으로써 그 노래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비행, 환각제 복용, 사탄 찬미, 지도자에 대한 반항, 복음에 어긋나는 태도나 행위가 찬미되는 노래는 부르거나 연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란 노래는 그 내용에 담긴 교리가 옳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두 번째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공연의 취지입니다. 불행하게도 건전한 노래가 공연 방법에 따라서는 불건전한 노래로 될 수 있습니다. 공연 취지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거나 불의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라면 가사가 말로 잘 묘사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곡을 피해야 합니다. 취지가 좋지 않았다고 이름이 난 사람의 곡은 거부하는 게 좋습니다.

공연 시의 복장, 두발 상태, 몸짓은 부도덕한 취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억제할 수 없는 동물적인 상황을 가사나 음성이 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리의 크기, 리듬, 박자, 연주자의 감정적인 태도, 기타 요소의 결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 상태를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극의 열정은 다른 어느 요소보다도 청중에게 큰 자극을 주게 됩니다. 열정을 다해 연주될 때 청중은 감정적으로 압도당하며 음악에 정신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러한 열정의 효과는 궁정적일 수도 있고 부도덕한 감정이나 생각을 유발시킬 때처럼 해로운 때도 있습니다.

이 열정은 춤에서도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악이 거칠고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만큼 격렬할 때 춤을 추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들을 개인의 의지에 맡기

지 않고 그 음악에 맡겨 버리게 됩니다. 극도에 이르면 거칠고 관능적인 몸짓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유혹에 이끌려 저항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기미가 보이면 소리를 줄이든가 템포나 리듬이나 연주자의 태도를 바꾸어 고조된 열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낮추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용 지침에 제시되어 있듯이 음악은 대화를 듣지 못할 만큼 커서는 안됩니다. 음악의 크기가 문제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용시 열정을 억제하는 다른 방법으로 박자나 템포를 바꾸거나 잠정적이 아닌 연주로 일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조화시켜 연주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격렬하여 특정을 유발시키는 음반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젊은이가 록 음악의 감정에 사로잡혀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한 약점을 노려 청년 무도회나 록 콘서트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젊은이가 중용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이와 대화를 나눌 때는 그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이해해야 하지만 의의 원리가 위태롭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보이드 케이페커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교회는 바퀴가 있는 마차로 보아 어른이나 청년들이 이미 여행해 간 길 위로 인도해 가려고 기대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젊은 세대는 이와 비슷한지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성품은 아무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일에 임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알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이와 유행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권장하는 무용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 가정에서 좋지 못한 음악을 멀리할 수 있으나 우리의 젊은이가 스스로 원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할 때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우리의 젊은이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권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결심하면 그들을 가르칠 수 있고,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배스찬 형제는 교회 음악과 청소년 위원회 의장이다.■

부모란

“아빠”, 저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게리 제이 콜맨

월요일 저녁은 집에 아빠와 엄마가 항상 있어서만이 아니라 매주 그날만 되면 전 가족이 성스러운 경험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밤 공과나 활동이 끝나고 기도를 하면 어린 네 꼬마는 잠옷으로 갈아 입고 개인 접견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는 말로 쉽게 풀면 “아빠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라는 질문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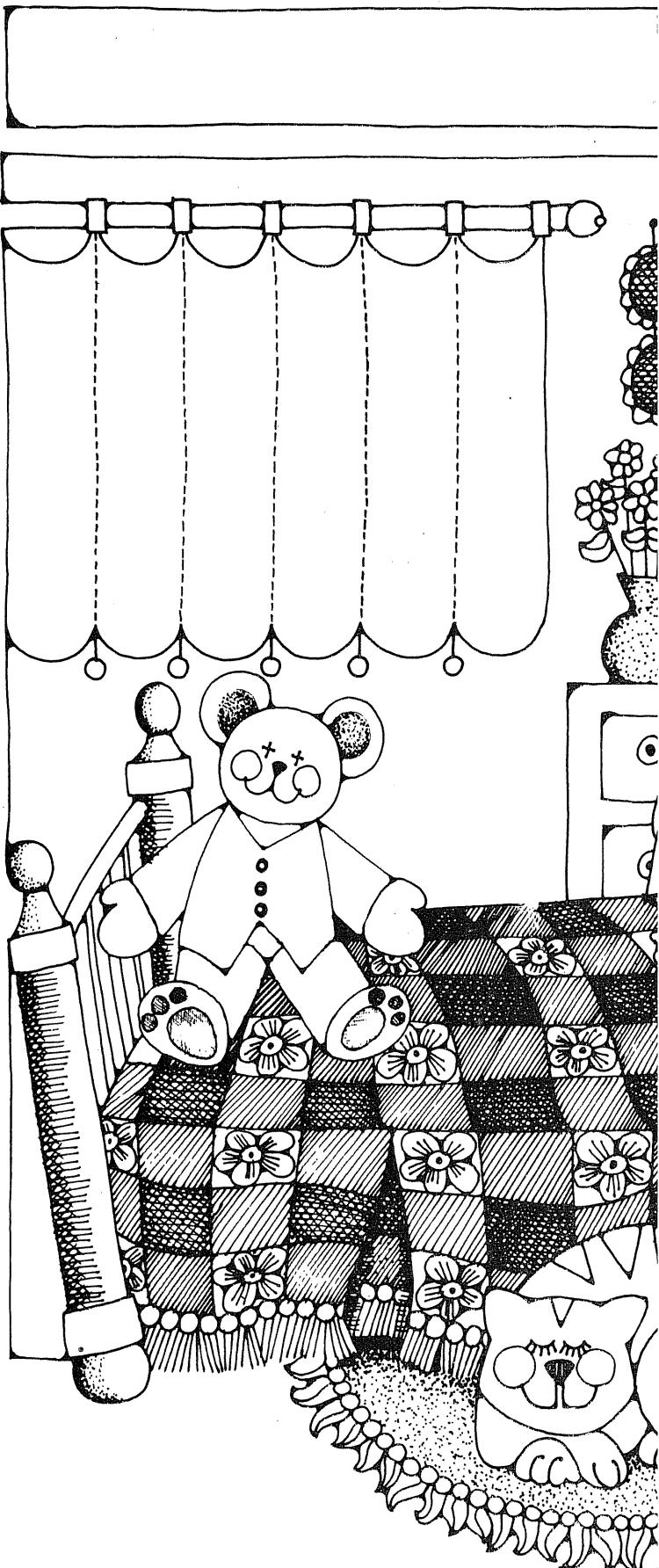
평화스러운 잠이 들기 전에 갖는 이 조용한 순간에 사랑과 안정과 진지한 관심을 상호 느끼게 해주는 나와 아이들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서로 먼저 이야기를 하겠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월요일 저녁에 갖는 이 모임이 또다시 가장 귀한 순간이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 아기와 몇 분을 보내고는 네 살짜리 아들 방으로 갑니다. “오늘밤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래요?”라고 묻는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 네 살짜리 꼬마는 재미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거나 한 가지를 오래 계속하지는 못합니다. 한 5분쯤 진지한 대화를 하고 나면 이 꼬마가 이제는 다른 사람 차례니 가라고 합니다. 나는 그의 머리맡에서 일어나 여섯 살짜리에게로 갑니다.

이 여섯 살짜리는 선교사로 나가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엄마를 도운 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 공놀이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네 살짜리는 고개를 들고 우리의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를 살펴 보다간 곧 조용해집니다.

나는 장남에게 소년 시절의 경험, 인생사의 준비 등에 대해 들려 주며 대화를 나눕니다. 사랑에 넘치는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과 대화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십니다.





! 47

점 잊기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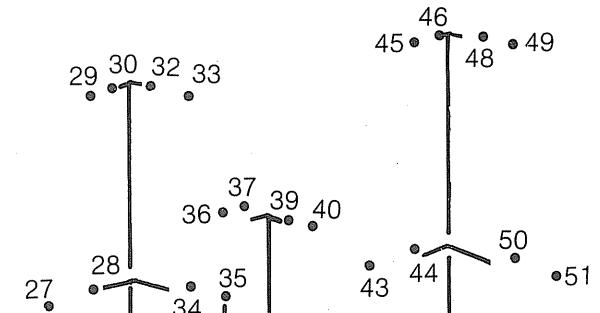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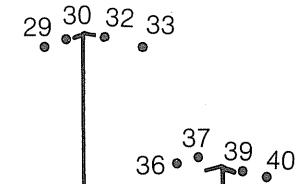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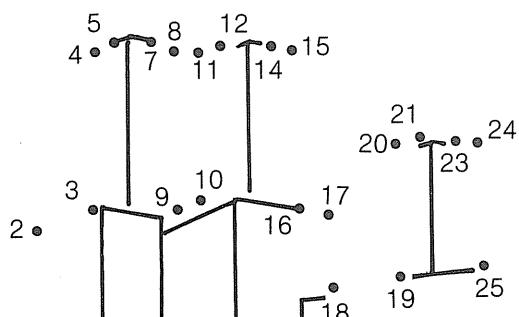
6



13

38

22



1

21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헨리 디 테일러 장로
십이사도 보조



몇 년 전에 나는 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어느 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열 한 살 난 딸의 신앙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어떤 습관 때문에 그는 교회와 멀어졌고, 어머니는 아무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딸이 어느 교회에 나가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열 한 살이 될 때까지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녀는 말일성도의 주일학교에 오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그녀의 생활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로 그녀는 매주 주일학교에 나와서 복음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음식을 축복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회원이 금식하는 것이 어째서 중요한지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녀의 가족은 식사 전에 축복을 하였으며, 부모는 딸이 금식일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그 날이 금식일인 줄 모르고 어머니가 준비하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날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 왜 오늘이 금식일이라는 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하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금식에 관해 잘 모르고 있었으나 딸이 보인 깊은 관심과 훌린 눈물에

크게 감동되어 금식의 목적에 관해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딸은 금식의 원리의 중요성을 어머니에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다른 복음의 원리와 교회가 자기에게 얼마나 중요 한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들은 어머니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금식일을 지키는 일이 그처럼 중요한지를 알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주님께 어머니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할수록 복음에 대해 배우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딸과 어린 아들을 데리고 주일학교와 성찬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곧 선교사가 집을 방문하여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와 딸은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되었으며, 아버지도 활동적인 회원이 되어 성스러운 침례 의식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후에 아들이 여덟 살이 되었을 때도 아버지가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는 지부장단 보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혼 15주년을 맞아 가족은 로스엔젤리스 신전을 방문하였으며, 여기서 부모님은 영원한 결혼을 하였고, 자녀들은 그들에게 인봉되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영예로운 날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한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사 11:6)라는 딸은 참으로 진실한 말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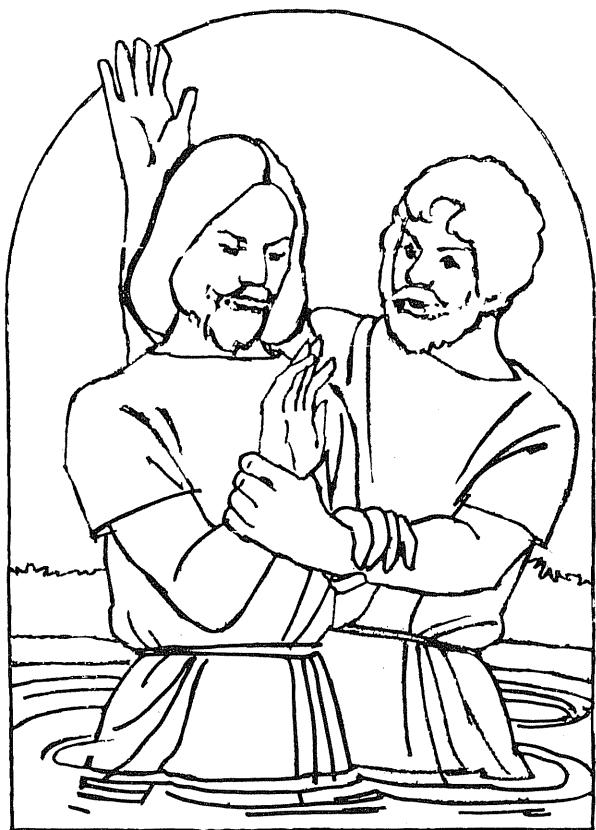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열 두 살 때 신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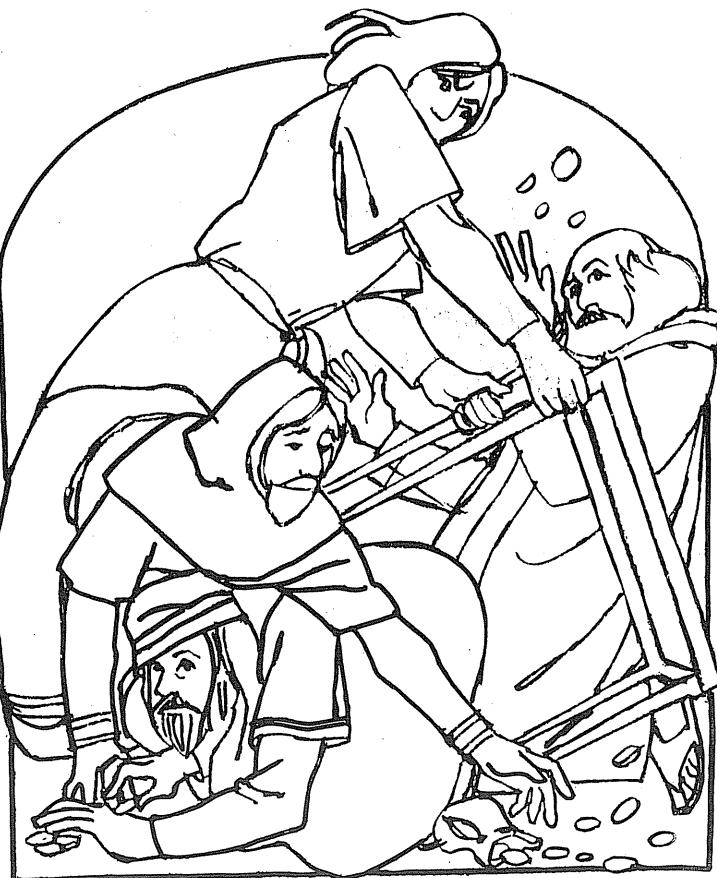


그때 그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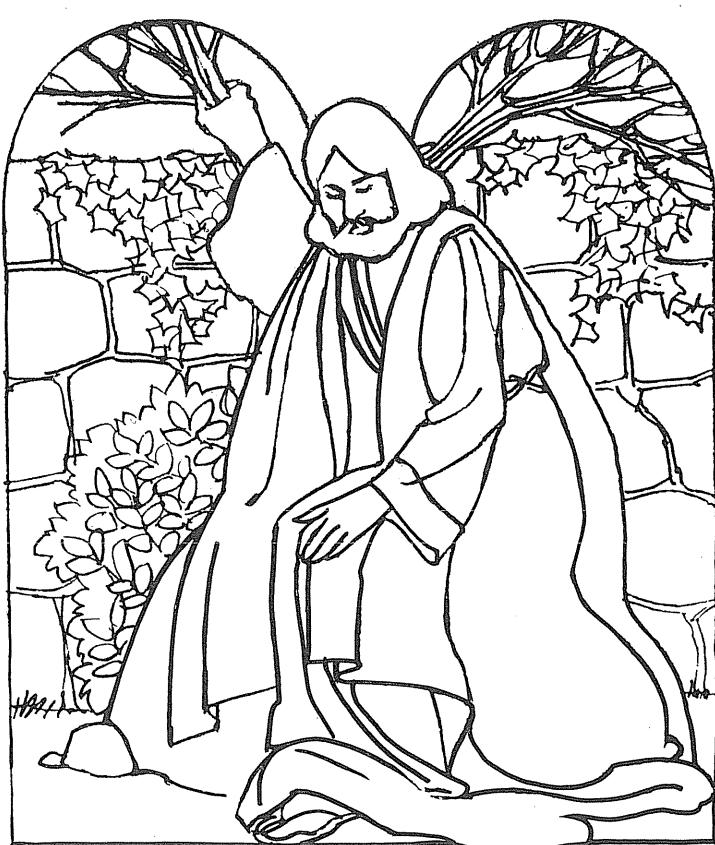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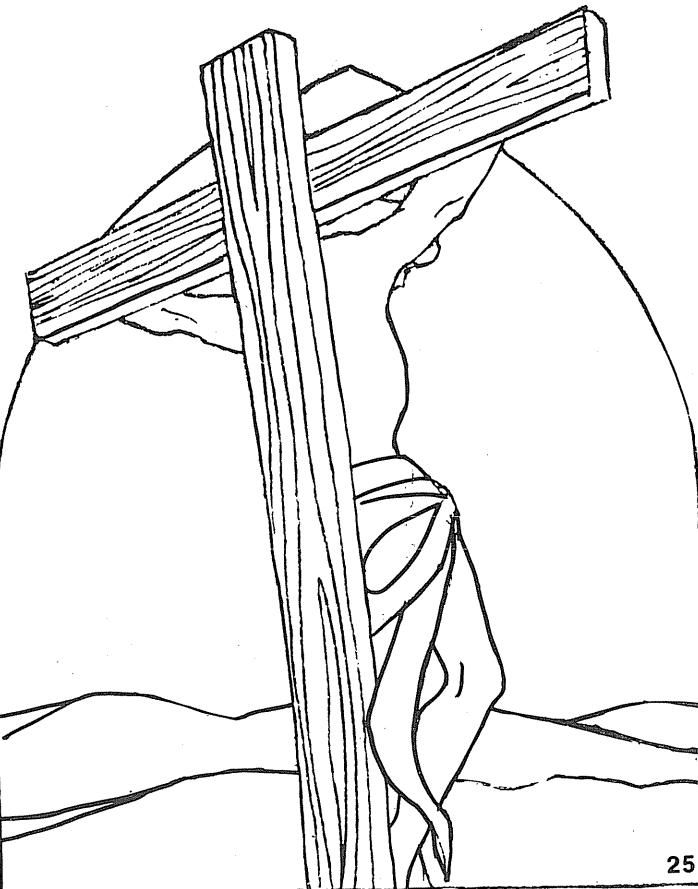
신전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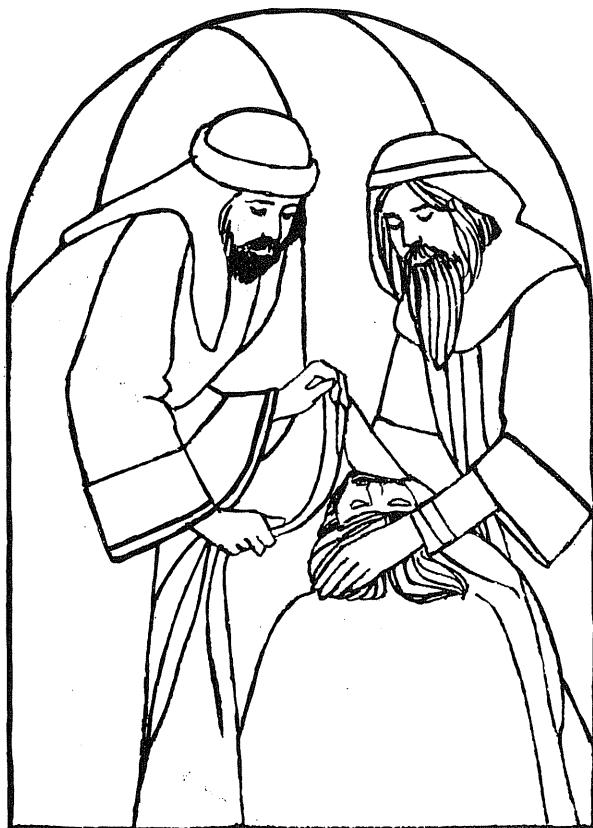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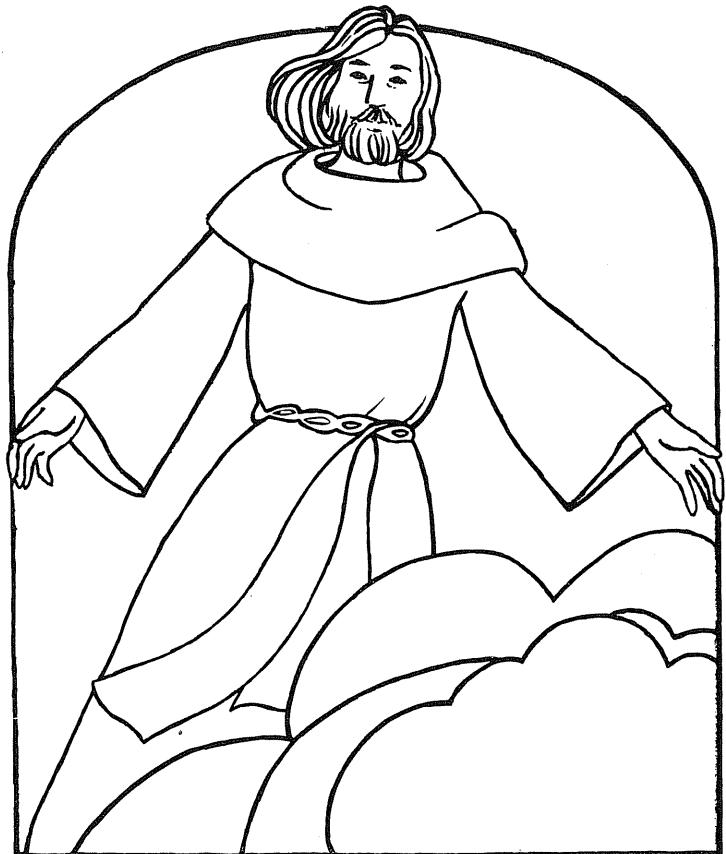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혔으나
삼일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후
많은 사람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 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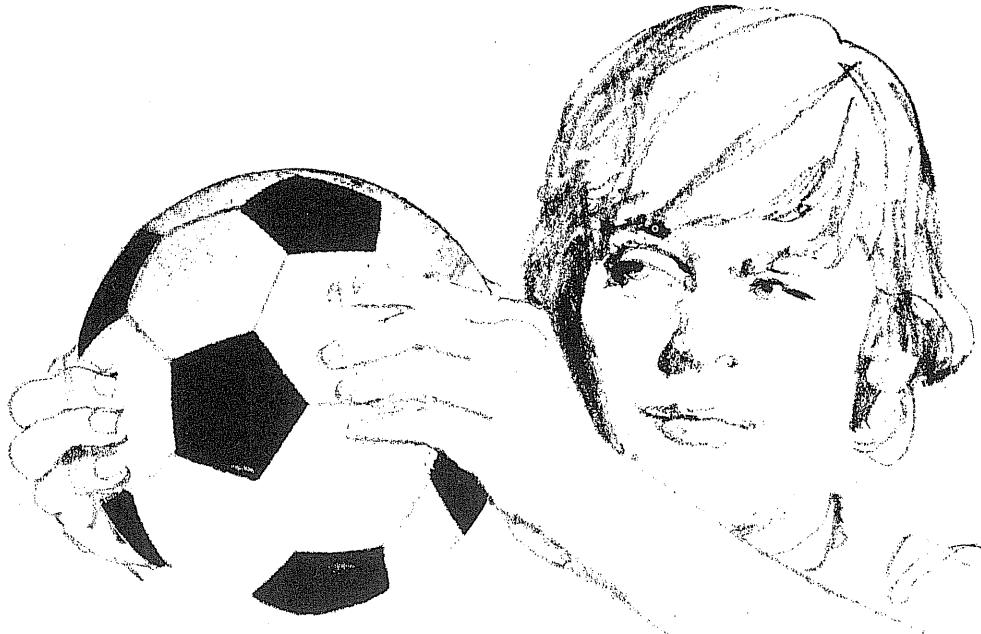


물론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두 부활하게 되었답니다

더크의 새 축구공

레오 디 휴



한글 더크는 둑근 돌로 포장된 길을 가로질러 건너 갔습니다. “십 프랑만 더 있으면 충분 할텐데”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퉁 이를 돌아서서 작은 앞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겹은 철책과 나란히 줄지어 서있는 집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집 뒤로 있는 테라스식 집들은 전형적인 벨기에에 집들이었습니다. 대개는 삼사층 건물로 모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한 건물처럼 보입니다.

더크는 27번지 집 문을 열고 벨을 눌렀습니다. 지난해에는 벨을 누르려면 발톱움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좀 커서 쉽게 손이 닿았습니다.

벨소리가 은은하게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윗층 창문을 열고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오 더크야 어서 들어 오너라.”

“안녕하세요. 페터스 할머니.” 그는 삼층으로 뛰어 올라가면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살 물건을 적은 종이와 돈을 더크에게 주었습니다.

더크는 페터스 할머니를 위해서 야채와 빵과 여러 가지 물건을 사다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우 십부름 값으로 오 프랑씩 주셨습니다. 더크는 십부름을 다녀 오는 길에 운동구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는 진열장을 뚫어지게 바라다 보곤 하였습니다.

하얀 축구공이 아직도 진열장에 남아 있었답니다. 더크가 일 년 동안 저축해서 살 공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북부 벨기에 마을에도 곧 겨울이 닥쳐 오나, 그것이 그가 좋아하는 공놀이를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는 운동구점을 지날 때마다 그 공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거나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쳐다보곤 하였습니다.

“오늘 십부름을 마치면 오 프랑이 부족하지”하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더크는 갑자와 양배추를 페터스 할머니에게 사다 드렸습니다. 그는 손에 쥔 동전을 보면서 하늘 높이 공을 차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십일조를 다음 주에 벌어서 내면 오늘 공을 살 수 있을 거야”하며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 가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이백 프랑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지 십일조를 내기 위해서 다음 주까지 기다렸다가 공을 산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하며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 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축구공이 곧 그의 손에 들어 오게 되었답니다.

더크는 달려 나가다가 문득 지난 주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린 십일조를 먼저 내야 해요. 우리가 십일조를 낼 때는 월말까지 견딜 수가 있지 않았수” 더크는 어머니 말에 동의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십일조를 내는데 어떻게 더 여유가 있을까?”하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는 주님의 십일조의 법에 순종하면 “하늘의 문”(말 3:10)이 열리고 더 많은 축복이 내려 온다는 내용의 가정의 밤 공과를 기억했답니다.

더크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운동구점이 눈 앞에 들어 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공이 들어 와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강

한 무엇이 그의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가진 돈에서 십일조를 계산하고 일요일에 지부장님께 내기 위해 봉투에 넣었습니다.

며칠후 더크는 페터스 할머니의 심부름을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방향이 달라서 운동구점을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더크가 할머니에게 갔을 때 할머니는 “감자가 더 필요한데 심부름을 한 번 더 갔다 오겠어?”하고 물으셨습니다.

더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야채 시장으로 달려 갔습니다.

반데카스텔 아저씨가 신문지에 감자 두 근을 싸주셨습니다. “공 살 돈은 다 모았니?”하며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내일이면 나머지 오 프랑을 다 모을 수 있어요”하고 더크는 크게 웃어 보였습니다.

감자를 사 들고 돌아 오는 길에 더크는 운동구점 앞에서 다시 결음을 멈추었습니다.

축구공이 없어진 것입니다! 더크의 눈에서는 눈물이 돌았습니다. ‘십일조를 내면 축복이 온다고 했는데 무슨 축복이 오지?’ 더크는 눈물을 닦으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참 더크야. 잊은 게 있었어 호박 세 개만 더 사주겠니”하며 페터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심부름을 해주면 지금 심부름값을 줄께”

더크는 오 프랑을 받아 들고 계단을 내려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장으로 향하면서 없어진 공을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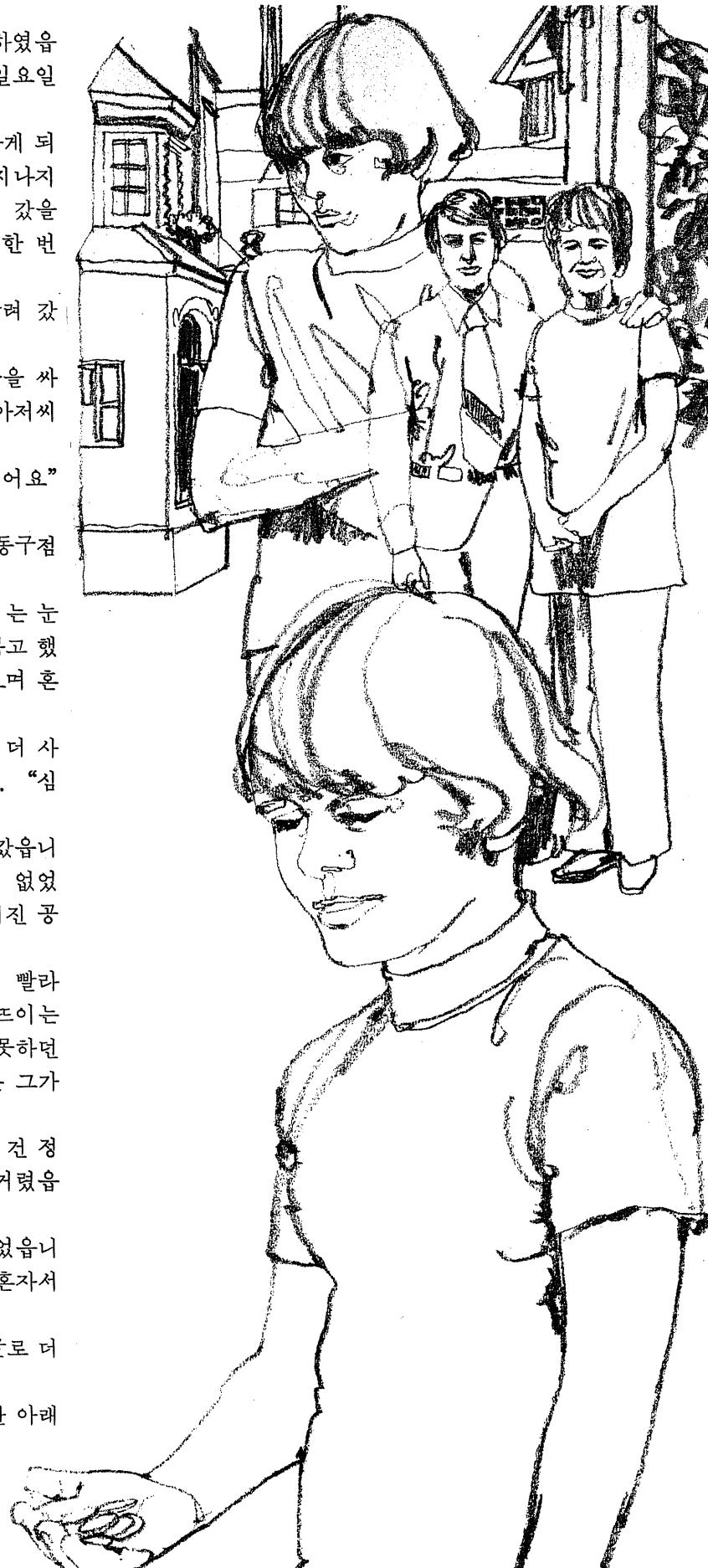
운동구점 가까이 왔을 때 그의 결음결이는 빨라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눈에 뜨이는 게 있었습니다. 진열장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더 좋은 공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의 가격은 그가 모은 돈보다도 멀었습니다.

“정말이야! 십일조를 내면 축복이 온다는 건 정말이야!”더크는 시장으로 달려 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페터스 할머니에게 물건을 전네 주었습니다.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렸어”하며 그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무얼 그러니?”하며 할머니는 이상한 얼굴로 더크에게 물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하며 더크는 계단 아래로 뛰어 내려 갔습니다. ■



20페이지에서 계속

나는 그가 이 고요한 순간에 그의 축복을 내려 주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일곱 살 난 딸은 그의 방에서 “아빠 아직도 제 차례가 안됐어요?”하고 조바심하며 기다립니다. 아들에게 사랑과 격려의 말을 주고는 자리를 일어서면서 막내가 침대 위에서 자는 평화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아빠와 갖는 이 특별한 모임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씻어 주는 양 이 날만은 일주일에서 제일 빨리 잠듭니다.

내가 딸의 침대맡에 앉으면 그녀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녀에게는 할 말이 많습니다. 학교, 친구, 교회, 인생 문제, 재미있는 책에서 읽는 이야기 두 세 가지를 들려 주어 가며 대화를 계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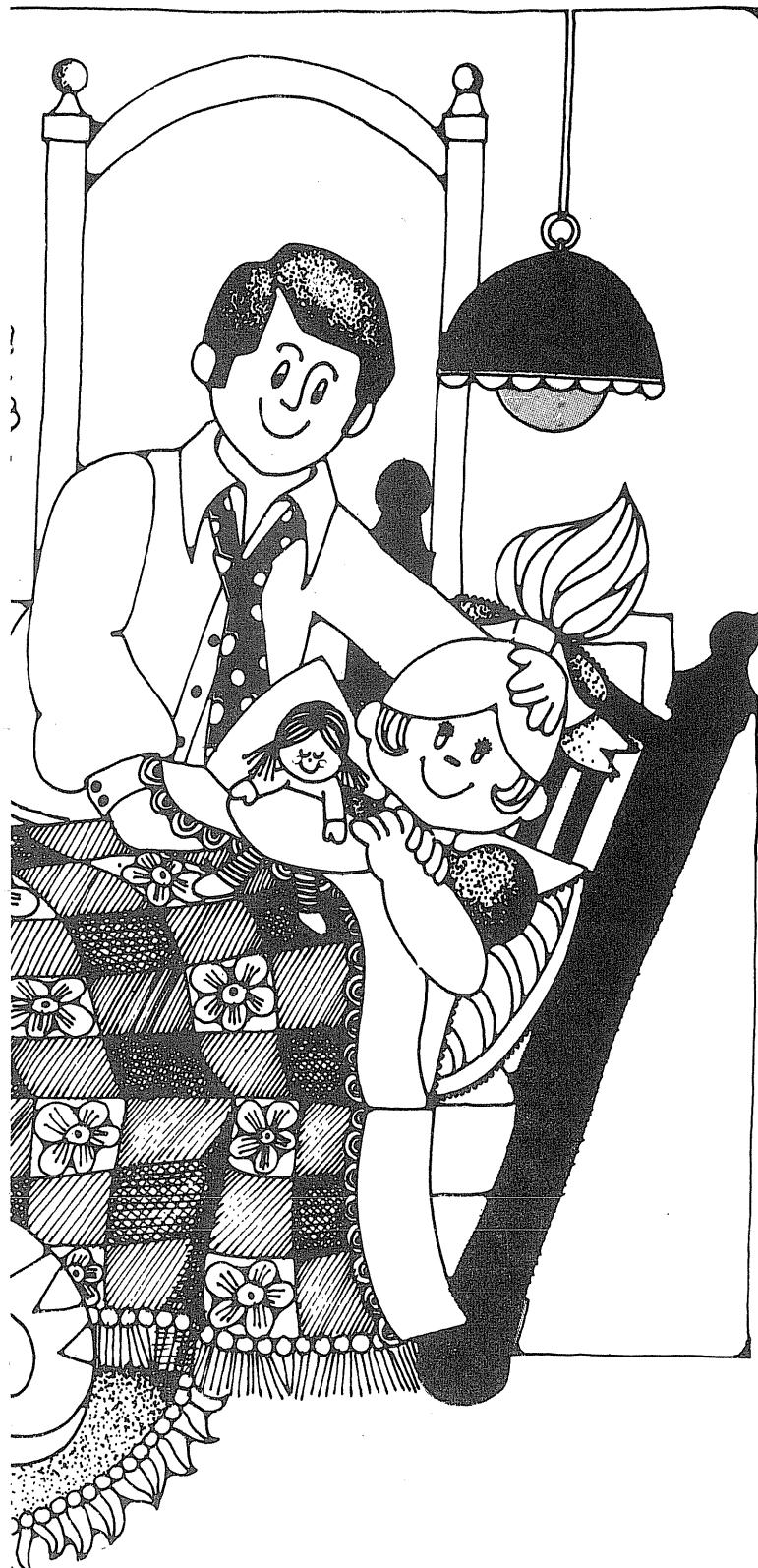
단정한 복장 표준에 관해 몇 마디 부드러운 권고를 주고 복음의 원리를 실천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말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이행하여 엄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라고 말합니다. 또 살아 계신 예언자에 관한 나의 간증도 들려 줍니다. 끝으로 우리는 몇 개월 후 침례를 받을 때 감독님이 물으실 질문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개인 접견”에서는 유대를 굳게 해주는 대화를 많이 갖게 됩니다. 또한 가장 좋은 교육 시간이고 나에게는 흥미 있는 학습 시간도 됩니다. 다시 나는 딸에게 훌륭하게 생활한 것을 감사한다고 말해 줍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꿈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아기와 큰 아들도 잠듭니다. 가정에는 평화가 깃들며, 다시 한 번 우리 가정은 사랑과 이해 속에서 성장합니다.

이제 조용한 거실로 들어 가서 나는 자녀를 뒷바라지 하느라 애쓰는 사랑하는 아내와 조용한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아이들과의 대화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신권 접견을 통한 이러한 대화가 매주일 새롭고도 소망을 품게 하는 성스러운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

콜맨 형제는 스포케인(워싱턴)신학연구원 대학부에 재직 중이며, 스포케인 이스트 스테이크 고등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다윗과 골리앗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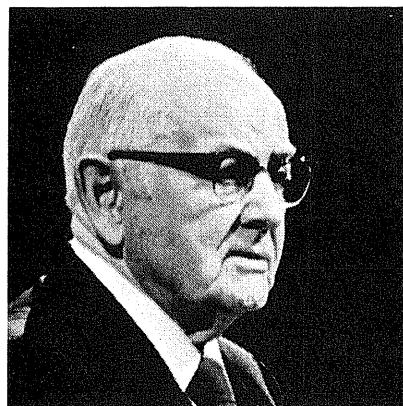
신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밤 195,000에 달하는 우리 신권 소유자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모임에 함께 참석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아리조나주 세인트 조셉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단으로 있던 몇 년전 어느 일요일에 에텐 와드를 방문한 적이 있었읍니다. 건물은 매우 작았고, 모든 사람들은 평지보다 반 퍼트 정도 높게 올린 연단 앞까지 빽빽하게 들어 찼었읍니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연단 앞 좌석에 앉은 일곱 명의 어린 소년들에 시선이 끌렸읍니다. 나는 이 와드 대회에서 본 이 일곱 소년들이 마음에 들었읍니다. 나는 이들을 내 머리속에 기억하고는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려 하였읍니다. 그러나 곧 나는 다시 이 어린 일곱 소년들에게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들 일곱 명의 어린 소년은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포개 놓더니 곧 모두가 동시에 이번에는 그 반대의 동작을 취하므로 참 이상하게 생각되었읍니다. 좀 보기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냥 지나쳐 버렸읍니다.

잠시 후 이들은 모두 오른손을 들



어 머리를 매만졌으며, 다시 이 일곱 명은 팔을 등어리에다 가볍게 갖다 대었으며, 한쪽 손으로는 턱을 바치고 있었고, 조금 후에는 일제히 다시 다리를 포개었읍니다.

모든 행동이 이상하기만 하여 나는 그 대회에서 할 이야기를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그곳으로만 쏠렸읍니다. 그러다 갑자기 다음과 같은 느낌이 내 가슴을 파고 들었읍니다. 비로소 나는 이 소년들이 나를 흉내내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나는 인생의 큰 교훈을 배웠읍니다. 역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주시하고 있고 그들에게서 모범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참으로 주의깊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읍니다.

모범이란 소년의 삶에 반영되는 중

요한 특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아 따르는 사람은 많으나 이끄는 사람은 적읍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지도력을 배양하고 훌륭한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활에서도 마찬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동생이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주시하고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여러분의 행동과 말을 그대로 따르려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십대의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회에 참석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여러분의 어린 동생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행하는 선교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충실히 신학연구원에 나가며 올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고,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어린 동생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페렌스¹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그에게 거울을 들여다 보듯 다른 사람의 생애를 보고 그로부터 훌륭한 모범을 본받으라고 말했읍니다.”

이솝의 우화에서 이솝은 “네가 모범을 보이면 내가 따르겠다”고 말했읍니다.

모범은 가장 좋은 훈계입니다. 사무엘 존슨²은 “모범이 훈계보다 낫다”고 하였읍니다.

나는 연령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지어 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보잘 것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값있고 아름다운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건설적인 행동으로 가득 찬 인생일 수도 있고 파괴로 점철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 비참한 모습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여러분과 여

¹ 페렌스(190-159 BC) 로마 극작가

² 사무엘 존슨(1709-1784) 영국 작가

여분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자세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에 따라 여러분이 오를 수 있는 고도가 결정되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위스에 있는 산이나 캐나다의 반호산이나 유타주의 텁파노고스산을 등반할 때 여러분이 큰 목표를 지닌 사람들과 함께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모두 여러분이 겪어야 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이 항상 쉽게 그곳을 정복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이브라햄 링컨³은 젊은 시절에 일리노이주 의회 의원으로 출마했다가 참패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무성의 한 동업자가 안겨다 준 부채를 갚느라고 17년을 허송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 약혼까지 하였으나 그녀가 곧 죽고 말았습니다. 정계에 투신하여 의회에 진출하려 했으나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였습니다. 미정부 국유지 관리국에서 직장을 얻으려 하였으나 이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 상원 의원에 출마하였으나 여기서도 참패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다시 그는 1856년에 부통령 후보자가 되었으나 다그拉斯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실패와 고난이 뒤따랐으나 그는 결국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이르렀고 생애를 마칠 때까지 불멸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 사람이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된 에이브라햄 링컨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수많은 책이 써어졌습니다. 혐난한 산을 정복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바로 이 에이브라햄 링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전개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무명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에 큰 장애가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그러한 장애가 대개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험난하다는 것에 기뻐하십시오. 그러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행복으로 아십시오. 무리 앞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장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벗입니다. 큰 장애가 없다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앞지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소년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시작했는지를 말해 주는 옛날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울 왕이 그 높은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주님은 예언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의 후계자를 찾게 하였습니다. 예언자는 여덟 아들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하나씩 접견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만심에 찬 아버지는 장남인 엘리암을 데리고 오면서 틀림없이 그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속으로 확신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의모를 보거나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7) 이 아버지는 다시 둘째를 데려 왔으나 그도 역시 거절되었습니다. 일곱 명의 귀여운 아들들이 차례로 예언자 사무엘 앞에 불려 왔으나, 예언자는 아버지 이새에게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새는 “아직 둘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삼상 16:11 참조)

집에 들어 오는 막내는 헐색이 좋았고 잘 생긴데다가, 얼굴이 탔으며, 명랑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는 그가 밖에서 양과 함께 매일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영감을 주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삼상 16:12)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그의 주위에 몰려 들었고 사무엘은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즈음 이스라엘의 적이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 침략하여 한 편 산에 쟁고, 이스라엘은 다른 편 산에서 골짜기를 두고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사가 서로를 마주 보고 쟁는데 적 중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사가 걸어 나와 이스라엘 전영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행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삼상 17:8-9) 그는 이렇게 더 외쳤습니다.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삼상 17:10)

이 사람은 거인이었으며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3미터 키에 철갑을 입었고 투구를 썼습니다. 다리에는 놋경갑을 켰고 어깨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므로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칼날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방패는 다른 사람이 들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삼상 17:5-7 참조)

그는 실로 무서운 상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측 병사가 그를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에게 감히 도전할 용기를 가질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뒷걸음질치며 떨고 있었다는 것은 능히 이해가 갑니다.

사울의 군대에 세 아들을 보낸 아버지 이새가 그들의 안전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아들이 이스라엘을 방위하는 군대로 나갔으므로 양을 치는 일은 다윗에게 맡겨지지 않을

3 에이브라햄 링컨(1809-1865) 미국 16대 대통령

수 없었읍니다.

아버지는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 형을 위하여 볶은 곡식과 뼈를 전하고, 치스 열 덩이를 천부장에게 전하게 하였읍니다.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엘라 골짜기로 갔읍니다. 그는 양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전쟁터에 와 보니 막 전투가 벌어지려는 순간이었읍니다.

다윗은 짐꾼에게 짐을 맡기고는 군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형들에게 인사를 올렸읍니다.

이때 다시 블레셋 사람은 전파 같이 소리를 쳤읍니다.

다윗이 앞줄로 다가 섰을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했읍니다.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려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자유하게 하리라”(삼상 17 : 25 참조)

다윗은 형들로부터 그곳에 왔다고 다음과 같이 꾸지람을 들었읍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뉘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려 왔도다”(삼상 17 : 28 참조)

다윗은 형들의 꾸지람에 당황하여 이렇게 말했읍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삼상 17 : 29 참조)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훌륭한 목적을 영감으로 받아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읍니다.

다윗의 영감과 계시가 사울 왕에게 까지 전달되었으며, 왕은 그를 불렀고, 다윗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삼상 17 : 32 참조) 그러나 사울은 그 말에 놀라 이렇게 말했읍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

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견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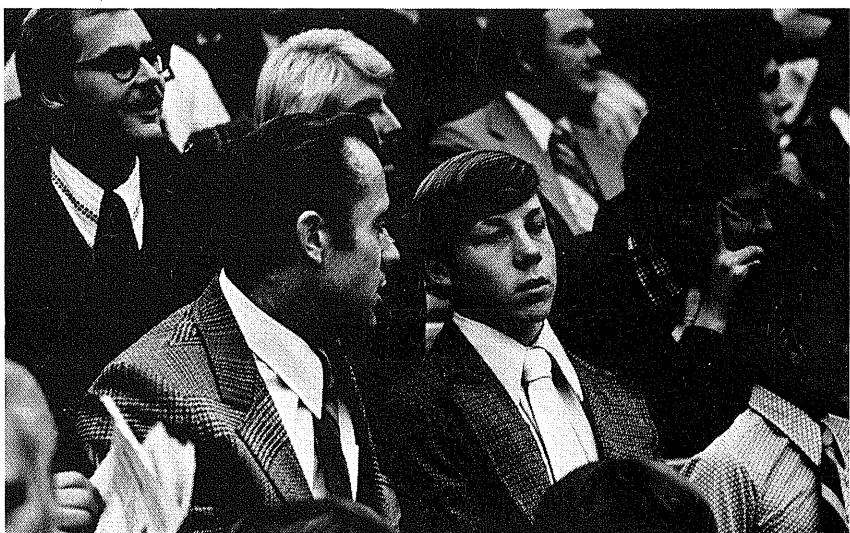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사

다.

이 거인은 어린 소년이 다가 오자 화가 치밀어 올랐읍니다. 짚고 얼굴이 붉으며 용모가 수려한 이 소년을 본 블레셋 사람은 화가 나 이렇게 외쳤읍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삼상 17 : 43-44 참조)

이에 다윗이 크게 맞서 블레셋인에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

무엘상 17 : 33-36)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계속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견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견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삼상 17 : 37 참조)

사울은 왕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으나 그는 무거워 감당할 수 없어 벗어버렸읍니다.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삼상 17 : 39)라고 다윗은 말했읍니다.

그는 강을 건너가 허리를 굽히고는 땅에서 작은 둘 다섯 개를 주어 양치는 데 쓰면 가방에 넣고 손에 물매를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 갔읍니

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불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불이시리라”(사무엘상 17 : 45-47)

블레셋인과 목동은 서로 다가 섰으며 둘 다 자신에 넘쳐 있었읍니다.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쥐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며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삼상 17:49)

나는 젊은이 여러분께서 이 물매를 가지고 써 본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것을 만들었으며, 돌을 주어 목표물을 정하여 능숙하게 맞히곤 하였습니다. 우리는 5센치 길이의 가죽을 타원형으로 오려서 양 끝에 구멍을 뚫고, 여기에 다시 긴 가죽끈을 매고 한쪽에 매듭을 지어 이곳에 우리 손가락을 집어 넣고, 타원형 가죽에 돌을 넣어 힘이 붙을 때까지 머리 위로 돌리다가 한쪽 끝을 놓아 돌이 목표물에 맞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물매, 호루라기, 장난감 공등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놀았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사무엘상 17:50)

그가 사용한 것은 작은 돌과 물매와 영감과 계시 뿐이었습니다. 그는 용기가 있었고, 힘이 있었으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나 그가 기도를 올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이 대단했었습니다.

40일간 블레셋인이 가졌던 당당한 기세와 독선과 오만한 태도가 골리앗의 죽음으로 끝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적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러 넣기 위해 다윗은 땅에 쓰러진 적에 다가가서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 행동으로 바람직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병사가 모두 도망갔고 이로써 영감받은 어린 소년이 모든 적군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도주하는 블레셋인을 쫓아 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왕은 그처럼 기적과 같은 공적을 이룬 소년이 누구인가를 물었으며,

요나단이 칼과 활과 떠를 그에게 주었읍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삼상 18:14)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이길 수 있으며, 또한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주먹이나 칼이나 총으로 쌔우는 무사가 아닐 수도 있읍니다. 그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읍니다. 그는 8척의 거인이 아닐 수도 있으며 갑옷을 입지 않을 수도 있으나, 모든 소년은 다 싸워 이겨야 할 골리앗과 같은 적이 있읍니다. 모든 소년은 그의 물매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매끄러운 돌을 줍기 위해 장가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을 위협할 골리앗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리앗이 마을의 깡패이거나, 도둑질이나 파괴로 이끄는 유혹이거나, 절도를 하거나 닥치는 대로 파괴를 일삼게 하는 유혹이거나 육욕이나 죄로 이끄는 유혹이거나 교회 활동을 기피하게 하는 생각이거나, 혹 어찌한 것일지도라도, 이 골리앗은 무너뜨릴 수 있읍니다. 그러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걸은 길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삼상 18:14)

다윗은 성실한 사람으로 그의 부친의 양을 돌보았읍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다른 일을 지시받았을 때는 반드시 양을 돌볼 사람을 마련해 놓고야 양떼를 떠났읍니다.

다윗은 책임감이 강했읍니다. 그의 양떼는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큰 위험도 무릅쓰고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자나 곰과 싸웠읍니다. 그는 곰의 입에 물린 양새끼를 다시 뱉어 어미에게 데려다 주었읍니다. 다

윗은 돌 다섯 개로 골리앗을 죽였읍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한 가지 뿐이었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님을 믿는 한 어떠한 사람도 두렵지 않았읍니다. 그는 블레셋 거인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베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삼상 17:45)

얼마 전에 나는 시사 잡지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읍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적의 냉혹한 친 바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둘이 뛰어진 열이 땅으로 떨어지듯 그 바람 앞에서 도망을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를 멸망하려는 바람이 오히려 그를 하늘 높이 오르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시련에 의해 평가되지 않고 그것을 얼마나 극복하였느냐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송유관 선전 광고가 있읍니다. “강이나 산이나 바다도 우리의 길을 막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뚫고 갈 수 없을 때 위로, 밑으로 둘러서라도 가고야 맙니다.”

우리 교회의 회원들이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오늘 저녁 터틀 형제가 말씀하신 선교 사업을 들 수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 교회 본부 전물에 걸려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온 세상에 나가서 만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읍니다. (마 20:19-20 참조) 다시 한 번 젊은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부름에 응할 책임이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감독이나 스테이크부장을 통해 주님으로부터의 부름을 받게 될 때 이 부름에 기꺼이 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선교사로 나갈 목표를 세우셨다면 세계 여러분께서 세계 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비용을 지금부터 저금해 두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임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여러분의 수중에 들어 오게 될 때마다 그 중의 일부를 선교사 비용으로 저축하십시오. 부모에게 선교 사업의 비용을 부탁하느니보다는, 모든 소년이 각자 스스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침례를 받고 성신을 부여받은 세상의 모든 소년은 복음의 메시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받은 기회이며, 여러분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에드가 에이 케스트⁴는 “장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생각해 보라, 나의 아들아
위대한 사람이 지녔던
두 다리, 양 팔, 두 손, 두 눈과
두뇌를 네가 가졌으니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정상을 향해 출발하고
“할 수 있읍니다”라고 말하라.

현명하고 위대했던 사람을 보라
평범한 그릇에 밥을 먹었고
비슷한 수저를 사용했으며
같은 구두끈을 매었으나,
세상은 그들을 위대하고 용감하다
하지 않는가.
그들도 너와 똑같이 출발했단다.

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으며,
마음에 따라 위인도 될 수 있단다.
어떠한 전쟁에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힘찬 팔, 다리, 머리가 있단다.
위대하게 된 인물도 다 처음에는
너와 같이 출발한 사람임을
기억하여라.

4 에드가 에이 케스트(1881-1959) 미국 시인

네가 마주칠 장애가 바로 너요
네가 설 땅을 택할 사람도 너요
네가 갈 곳을 밟을 주는 사람도
남이 아닌 바로 너란다.
얼마나 진리를 탐구하려느냐
하나님은 네게 생명을 주셨으나
네 진로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너란다.

마음속에 용기를 지녀야 하며
승리의 뜻을 품어야 하리니
자 나의 아들아 생각해 보라
위인이 지닌 모든 것을 다 갖고
태어난 너니 그들처럼 시작하라.
두려움을 버리고 “할 수 있읍니다”
라고 말하라.

에드가 에이 케스트 시집 : 시카고
; 레일리 앤드 리 1934년, 666페이지

여러분의 진로를 방해하고 가로막을 또 다른 거인 끌리앗에 주의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이번에 그의 이름은 외설파 저속함입니다. 자 들어 보십시오.

네가 저속한 이야기를 할 때
잠시 멈춰 생각하라
많은 무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소년들이 즐긴다고 여기며
웃는다고 보아서
차랑스럽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속된 이야기가 네 입에서 나올 때
네가 심중에 품은 생각을 모두
드러낼을 모르는가?
너의 저속함파
너의 무지함을 드러내나니
선량한 소년에게 구토를 일으키느
니라.

너의 더러운 마음을 남에게 보이고
진정한 상식을 나타내 보였다고
생각하려느냐?
부모 친구를 모독하고 있음을
모르는가?

잘 생각하면 알게 된단다.

선택해서 말을 하며
좀더 다듬어진 말을 하라.
주위의 존경을 얻으면
죄와 저속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 가는 사람보다
큰 이로움을 맛보게 되리라.

어린 시절에 읽은 이 시에 나는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시를 듣고 새로운 느낌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리조나주에 살던 어린 시절에 그곳 농부들이 참외를 재배해 시장에 팔곤 한 것을 기억합니다. 때때로 불량 소년들이 폐거리를 지어 야밤을 틈타 참외밭에 침입해 칼로 참외를 찍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들은 참외를 훔쳐 먹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파괴하고 싶은 못된 의도로써 이 짓을 하곤 하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이런 것은 방화, 창문 파괴, 본성적으로 파괴적인 저속한 장난 등과 같이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면 그러한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지만 이는 그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끌리앗을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곰을 죽였지만 아버지의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처럼 파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보셨다면 그를 타일러 아무런 가치도 없고 자신의 인품에 상처만을 남길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도록 당부합니다.

볼몬서의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시련의 날에 지혜로우며 너희에게서 부정한 것 모두를 털어 버리라. 욕망으로 인하여 구하지 말라. 혼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간구하여 유혹에 빠지지 말며 살아

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골본서 9:28)

헨리 반 다이크의 다음 구절은 여러분에게 실감이 갈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자신의 눈을 멀게 하였고 의심으로 하늘의 빛을 어둡게 했으며, 당신을 가두기 위해 신전 벽을 높이 쌓아 올렸으며 당신을 내쫓기 위해 철의 신조를 만들었나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글”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깨끗하여야 하며, 온갖 악한 행동이나 생각을 멀리해야 합니다.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화풀이 등을 삼가해야 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의로운 일을 행하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나 성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옳고 그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은 후 성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행위나 생각이 옳거나 그르다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 남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자신의 그림을 그리며, 동상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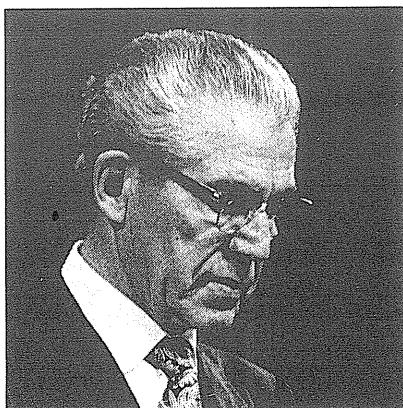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젊은 형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참된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은 다 옳은 일이며,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며, 여러분을 사내답고 강하게 해줍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삼상 18:14)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1974년 10월 5일 토요일 신권 모임

범법자에 대한 우리의 책임

엔 월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내가 말씀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영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작은 지부의 새로 부름받은 집사에서부터 교회에서 높은 직책에 부름을 받아 수고하는 대제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영예로운 특권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성약을 맺었으며, 우리가 그러한 성약을 지키고 주님 앞에 의롭게 나갈 때 그로부터 약속된 많은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며칠 전에 나는 교회 회원이 된 지 5년째가 되는 어느 성실한 귀환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그

와 나눈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높은 이상을 지니고 계신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으나 교회가 가르치는 많은 것을 생각하기는커녕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살아 계신 예언자가 있으며, 죽은 후에 영과 육이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과 그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의 자녀라는 아름답고 중요한 뜻을 몰랐습니다. 회복된 복음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으며, 그는 문자 그대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배운 바가 없었습니다.

많은 젊은 친구들과 어울려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던 이 젊은이는 다른 젊은이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으며, 술, 담배를 하지 않고 환각제도 먹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세 젊은이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 세 사람은 어느 면으로 보나 매우 높은 표준으로 실천하는 사람으로 보였고 도덕적으로도 순결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마음이 쏠려 그들이 어째서 남과 다르게 보이니를 알아 보려고 말을 걸었습니

다. 그들은 자신이 물론이라고 말했고, 지혜의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그것을 지킨다고 하였고, 주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출 20:14 참조)고 하셨고 교회는 성적인 범법을 가장 가중스러운 죄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나는 이들과 가깝게 되었으며, 그들이 가르치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꾸밈없이 교회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 다른 젊은이들과는 다르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조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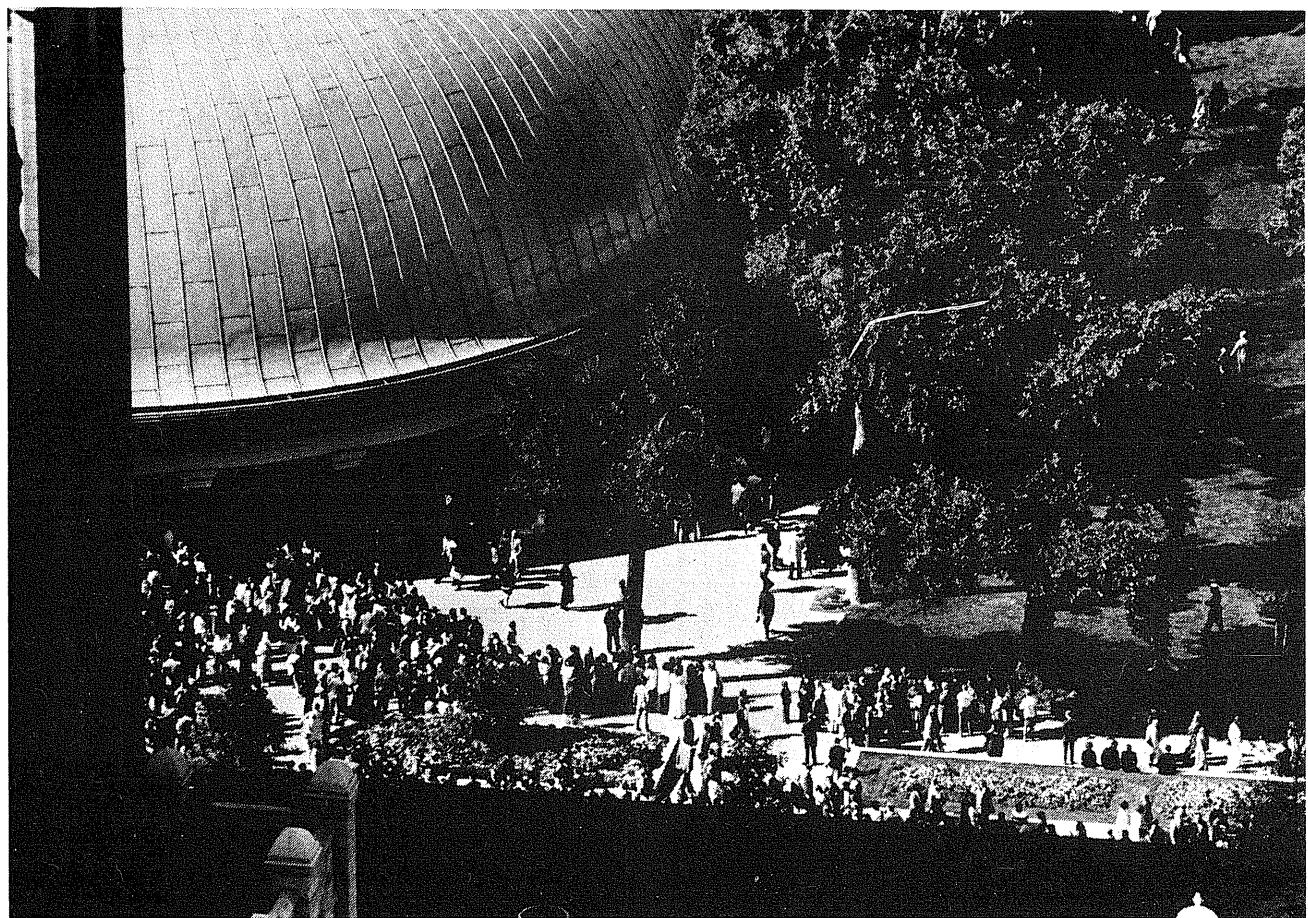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회원으로 군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복음의 원리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해주었습니다.”

유혹에 굴하고 마땅히 살아 가야 할 바대로 살지 못하며, 옳은 일을 위해 단호히 나설 용기가 없는 회원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만일 그들이 개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성실한 자에게 오는 축복을 받기 위해 합당하도록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

었을 것입니다.

그 젊은이는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내가 만난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귀환 선교사였는데, 내가 관심을 보이자 그는 선교사 시절에 복음을 가르치던 식으로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크게 실망하시고 언짢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집에 들어 가서 모든 것을 말씀드렸으며, 그들은 나의 생활 태도와 습관이 선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침례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태버나클 밖에서 기다리는 군중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19세에 교회에 오게 되었읍니다. 그는 아론 신권을 받고 주님을 기억하는 성찬을 전달하고 축복하게 된 것을 얼마나 큰 축복으로 생각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의식의 거룩함을 느낄 때 매우 겸손해진다고 말하고, 항상 주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느끼며 합당하고 단정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사로서 새로운 구도자를 침례할 때 그의 신권이 구체주를 침례한 침례 요한에게 수여된 것과 똑같은 권능이라는 사실을 알아 큰 축복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모든 젊은이가 그 권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의식을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가를 알게 되며,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신권에 합당하며 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젊은이는 일년 후에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접견을 받을 때 그의 감독과 스테이크부장에게 자기가 엄격히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십일조와 현금을 바치며,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 순결하며, 참으로 여성을 존중하며, 여자 친구를 친 동생에게 대하듯이 친절하게 대하였고 다르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에 대해 좋게 생각하였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주님의 대사로서 임지에 나갈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도 그의 대표로 자신을 받아 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첫

개종자를 침례하고 확인할 때 느낀 훌륭한 경험도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상은 그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는 멀기 세백 신권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고 그를 장로로 성임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더욱 겸손해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자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을 받기에 합당해야 하며, 그가 성임한 사람은 교회의 대관장으로 성임했을 때와도 같은 장로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결혼을 하게 됨다고 하면서 그의 말을 마쳤는데, 그는 그와 그의 애인이 영원히 인봉받을 수 있는 신전에 들어 가기에 합당하며, 순결하다는 사실에 감사함과 행복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읍니다. “어떠한 젊은이에게도 하나님의 신권을 받는 일보다 더 큰 특권과 책임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 형제님은 하나님의 신전에서 거룩한 신권으로 인봉되어 모든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라난 많은 젊은이에게는 그러한 신권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들이 신권을 소유한다는 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보지 않고 당연한 권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어기거나 도덕의 표준을 낮추는 것이 혁명한 쳐사로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젊은이가 신권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며, 합당하지 못할 때는 합당해 질 때까지 신권 승진을 보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또한 선교사로 가도록 부름을 받기 이전에 합당히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회사를 대표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할 사람을 뽑을 때 자신의 합당성과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고, 회사의 간부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 직에 부름받은 예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대표해서 그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합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합당한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악과 불의를 꾸짖고 진리의 진증을 전함으로써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할 수 있게 단호히 일어서 준비를 갖춘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자녀가 그의 길을 이탈하여 떨어져 나갔을 때 슬퍼하신 것처럼 그와 약속을 맺은 사람이 이를 지키지 못할 때 실망하시며 슬퍼하십니다.

나는 우리가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킬 때 우리를 조롱하면 사람으로부터도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며, 보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 젊은이들에게 확신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약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위해 단호히 일어서며, 남과 다르게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 회원이 어떠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와 같은 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 때에도 그는 몰몬이거나 몰몬 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이 지적되곤 합니다.

신권 소유자나 예비 신권 소유자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일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특권임을 우리의 지도자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이나 합당한 모범이나 간증을 통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그들의 책임과 복음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도록 도와야 합니다.

소년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성공하고 행복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시오. 어떠한 젊은이라도 자기가 받아들인 복음대로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고 자기가 소유한 신권을 성스럽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권 승진이나 신전 추천서나 선교사 부름 등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합당하지 못한 사람에게 신권을 승진시키거나 신전 추천서를 발급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보내는 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부름을 받기 전에 합당함을 증거해 보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합당한 대표자를 원하십니다.

매사에 정직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젊은이 여러분께 재차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선교사의 부름을 받거나 신전 추천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에게 까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특권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통당하시지 않습니다.

지도자 여러분, 예비 선교사로부터 주님이 그의 대표자로 그들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접견을 하여 그가 합당한지 아니면 범법을 행하고 있는지, 선교사 부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알아 보는 데 주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 주님께서는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해 보고 이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합당하지도 않은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못됩니다. 그는 그 부름의 참된 정신을 지닐 수 없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봉사하면서도 선교부장에 짐이 되며, 선교 사업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나는 선교사가 범법으로 파문되어 귀환될 때 그 선교부장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인지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범법을 저질렀으면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돋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도울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노리고 있으며, 그의 많은 추종자들은 이들 청년 남녀를 옳지 못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이들이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도록 격려하고 인도해 주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주의로 인해 한 사람의 낙오자가 생겨서도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범법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선교부장과 스테이크 부장과 감독은 범법 행위를 어떻게 조사하고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해 지시와 교육을 받읍니다. 무거운 죄를 범한 사람은 발전할 수 없으며, 그 죄가 그에게 남아 있는 한 행복할 수도 없읍니다. 고백하고 회개할 때까지는 구속되어 있는 몸과 다름이 없읍니다. 사랑과 합당한 징계로 죄가 다루어진 범법자는 나중에 여러분이 보인 관심이나 지도력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관심을 기울일 때 그는 회개하게 되

고 다시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그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비활동적인 사람들을 알아보고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거나 누군가가 범법을 저질렀다고 하면 사랑을 지니고 찾아 가 그 사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를 표시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빨리 조처를 취함으로써 다른 범법을 사전에 막아 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구하고 그를 우리 안으로 이끌어들이십시오.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 중에는 한 사람도 파문을 시키거나 징계한 일이 없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읍니다. 이러한 태도는 전적으로 잘못입니다. 이스라엘의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로운 심판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판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억을 되살려 줄 중요한 말씀을 교리와 성약 20편에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범법하거나 잘못을 범한 자는 경전에 지시된 대로 처리하라.”(교성 20:80)

형제 여러분, 경전과 지침서를 공부하시고 지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교회 회원을 징계하십시오. 지역 신권 지도자가 범법자의 죄상을 덮어두거나 감싸 주려 하는 것은 결코 그에게 친절한 행위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존 테일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는 사람들의 죄를 감추려고 애쓰는 감독이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그 죄 뒷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만일 여러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죄를 감싸 주거나 그를 두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 되시는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의의 원리를 변경하거나 인간의 결점이나 부패를 감싸 주는 위치에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대회 보고, 1880년 4월, 78 페이지)

형제 여러분, 이는 매우 단호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언자인 교회의 대관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조지 큐캐논 부대장관님도 다음과 같은 의미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틀림없이 이를 슬퍼하셔서, 죄행을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무인한 사람들로부터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그곳에 속하여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표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음을 계시로 받아 알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표준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된 신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범법자를 다루는 방법과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가 갖는 책임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 말씀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절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

“무릇 게으른 자는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의무

를 깨닫지 못하고 신임 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자도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107 : 99-100)

경전을 보면 교회가 다루어야 할 범법에는 간음, 사통, 동성애, 낙태, 기타 도덕률을 어긴 경우나 도둑질이나 부정, 살인, 배도 등 도덕적 비행을 포함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경우, 교회의 윤법이나 규정을 공공연히 반대하거나 고의로 불복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한 경우, 복수 결혼을 주장하거나 이를 실시한 경우, 윤법이나 교회의 질서를 어긴 비기독교적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읍니다.

지도자 여러분께서 주님의 권고에 따를 때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며, 강하게 해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를 위해 봉사하면서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사람이 파문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 당할 때 여러분께서 큰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그가 생활을 깨끗이 정리하여 정상적인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정을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읍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 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 : 42-43)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는 인간을 구원하는 책

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지도자로서 우리는 회원을 의로운 길로 이끌고, 강한 신앙을 갖게 해야 하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키하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부모와 자녀가 도덕적으로 순결하며 하나님 왕국의 합당한 회원이 되도록 노력하며 준비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 그들과 진밀한 관계를 맺고 일해야 할 책임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성과 불필요하게 지나친 친분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인 교회 대관장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부활하고 불사불멸과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목숨을 버리신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예언자인 스펜서 더블류 캠볼 대관장님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읍니다. 그분과 가까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를 따를 전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롬니 부대관장님이 “우리의 고결을 증거하자”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고결함을 입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醫

고결

신권 소유자는 강한 도덕적인 성 품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매리온 지 르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사랑하는 신권 형제 여러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결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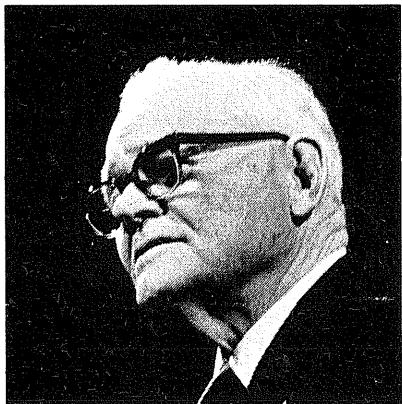
고결이란 말은 “전진한 도덕 원리를 지닌 상태나 정직, 공정, 진실 등”을 뜻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结이란 말에는 정직, 공정, 진실이라는 말과는 다소 구분되어 “변질될 수 없는 도덕적 성품의 준수성”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고결한 사람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매일 빨간되는 신문이나 라디오, 기타 시청각 자료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실망하더라도 굳건히 견딜 수 있는 고결한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성실하고 진실한 친구, 정직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조언자, 공정하고 의협적인 상대를 보내 주십시오.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만세 반석의 일익을 맡을 사람입니다.”라고 에이 피스텐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룬 문명이 위기에 직면하



고 있습니다. 고결한 사람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신권 소유자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나와 우리의 모든 아론 및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성스러운 임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실망시켜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고결한 청소년과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승영은 우리가 온갖 위험과 난관 속에서도 성실하게 맡겨진 임무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교회사, 3:380 참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절대로 고결하지 않고서는 영생을 약속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의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

을 위한 칩례와 성신을 받은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야 하며, 의를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곧 그에게 ‘아들아 너는 승영을 누리게 되리라’ 하여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주님께서 완전히 그를 시험해 보시고, 그가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그를 받든다는 것을 아신 후”에야 받게 됩니다. (교회사, 3:380)

우리는 집사에서 사도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고결함을 입증해 보인 모범적인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킴볼 대관장님이 좋은 예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고결하게 살아 오셨습니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맡겨진 성스러운 책임을 그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태너 부대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그는 사업계나 관계에서 보인 모범으로 동료들로부터 “고결한 분”이라는 별명까지 받았습니다.

이 고结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님들은 좀 생각해 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네 명의 말일성도 소년이 유타주의 어느 시에서 대륙 횡단 여행을 하기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여행을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비를 저축하였습니다. 이제 졸업도 하게 되어 이들은 차에다 짐을 싣고 걱정하는 부모와 부러워하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유타주의 경계를 넘어 다른 주로 들어섰을 때 모두들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추고 새로운 세계의 분위기를 마음껏 느껴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에 맛보지 못한 꽈김을 느꼈으며, 모험심이 이들의 마음을 자극시켜 주었읍니다.

태버나를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은 이틀에 한 번씩 그들의 거처를 부모에게 알리기 위해서 엽서를 보내기로 하였으며, 사고를 당하는 경우 전보를 치기로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 소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매우 편하고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소년은 처음 고향을 떠난 시골 사람의 촌티를 내지 말고 경험이 많은 여행자처럼 행세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소년은 생각한 끝에 여행하는 동안만은 물론이라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자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다른 세 친구의 말에 그는 그렇게 해야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고 물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흥미있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나쁠 게 있나? 우리

들이나 자동차를 보고 교회 이야기를 껴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텐데?’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새로운 경험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이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으며 이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기로 의결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원래는 동부 사람이나 잠시 유타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자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차에 붙은 유타주 면허 뼈문에 이러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행 첫날 밤 이들은 유명한 휴양지 근처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 이들은 호텔의 야간 쇼를 보기 위해 함께 호텔에 들어 갔습니다. 이들이 들어서자마자 호텔 보이는 이들이 엄격한 부모와 선생으로부터 금해졌던 여러 가지를 구경시키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첫눈에 뜨인 것은 라운지 끝에 있는 큰 네온싸인 간판이었습니다.

‘빠—카테일, 맥주’라고 쓰여 있는 간판이었습니다. 약간의 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들은 바로 들어 가 맥주를 한 잔씩 청하기로 했습니다. 바 안으로 걸어 들어 가면서 이들은 혼란한 분위기와 카운터 위에 있는 수많은 술병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문을 하기로 된 소년은 처음에는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침을 다시 한 번 삼키고는 ‘맥주 네 잔 만 주세요’라고 겨우 작은 목소리로 청했습니다.

“맥주로 느낄 수 없는 기분을 그곳 분위기와 둘뜬 마음이 채워 주었답니다. 그들은 약간 용기를 얻게 되었으며 다음에 할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어 잘 무렵 웃을 찰압은 한 신사가 그들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 왔습니다. 그의 얼굴 모습과 결음걸이가 이들 소년에게는 심상치 않게 보였습니다,

“그신사는 소년들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 와서는 그 중 한 소년에게 손을 내밀면서 ‘실례지만 유타주에 사시는

조지 레드포드씨의 아드님이 아닙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소년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맥주병을 만지고 있던 그의 손은 굳어지고 말았으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맞는데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신사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걸어 들어 오는 모습을 보고 알아 보았습니다. 난 헨리 폴슨이란 사람으로 레드포드씨가 다니는 회사의 부사장입니다. 지난 겨울 유타 호텔에서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지요. 물론 소년은 어떻게 다르냐고 물은 회사의 한 중역 질문에 물론이 가진 신원에 대해 설명한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난 학생이 바로 향해 걸어 가는 걸 보고 약간 놀랐어요. 그렇지만 난 물론이건 물론이 아니건 소년들이란 다향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년들은 연단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반쯤 마신 맥주 잔을 두고 호텔 로비를 걸어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야영지로 돌아 올 때 깜깜한 밤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신분을 감추기로 제의했던 한 소년은 ‘분위기를 바꾸려고 그런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이 정도는 이겨 내야지’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그 신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소년은 ‘잘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경험을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는 값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같구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작고한 찰스 더블류 니블리 형제가 들려 주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의 경험담을 짧은 장로 여러분께서는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니블리 형제는 고인이 되신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의 부친이었던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에 관해 이렇게 말해 주었답니다. “그의 용기와

고결함이 입증된 또 다른 사전이 1857년 가을 그가 선교사로 있던 샌드위치섬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일어났습니다. 그는 당시 남부 루트라고 불리던 행로를 따라 로스앤젤리스를 경유하여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 해는 존스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유타에 진격해 온 해로, 물론에 대한 일반인의 감정도 몹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마차를 타고 열마리 달린 후 캠프를 치려 하는데 물론을 박해하던 폭도들이 말을 타고 캠프에 다가 오면서 욕설을 퍼부어 대며 물론을 만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떠들어 대었습니다. 조셉 에프는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하려 가 약간 떨어져 있었으나 함께 있던 사람들이 개울이 흐르고 있는 숲속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자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니블리 형제님, 나도 이들을 피해 숨어야 합니까? 왜 이들을 두려워하지요?’ 이 말을 한 그는 팔에다 장작더미를 한 아름 안고 권총을 꺼내 휘두르는 폭도 앞으로 다가 갔습니다. 그 폭도들 중 한 명이 조셉 에프를 향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놈도 물론이냐?”

“곧 다음과 같은 대답이 그의 입에서 흘러 나왔습니다. ‘물론이지요. 나는 철저한 물론입니다.’

“이 말에 그 폭도는 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멋진 사람이오. 악수합시다. 나는 자신의 확신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당신 같은 젊은이를 만나 기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의 교리, 데저렛 출판사, 1939년, 518페이지)

에이브라햄 링컨도 그의 유명한 연설에서 고결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존 웨슬리 힐은 그의 저서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에이브라햄 링컨”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링컨은 미국 상원직 지명을 수락하는 연설에서

그의 독립심과 강인한 의지를 잘 나타내 보였습니다……이 연설에서 그는 미합중국은 ‘반은 노예와 반은 자유’인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는 역사적인 선언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링컨은 그의 친구인 제시 케이 두보이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연설문을 당신에게 읽어 드리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당신께서 들으신다면 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쩔수 없는 경우라면 그 연설을 끝으로 모든 것을 끝장내기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 뜻을 밝히지 않고 승리를 거두느니 차라리 연설에 이 말을 남기고 고배를 마시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에이브라햄 링컨, 뉴욕파 런던, 지 퍼 프트냅스 손스, 1927년, 151페이지)

링컨이 그의 연설에서 “반은 노예요 반은 자유”라는 구절을 남기는 데는 큰 용단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는 야망에 넘치는 사람으로, 그 상원직을 통해서만 대통령에 이를 수 있었으나 당시의 정치 풍토로는 그 문제에 관한 한 그의 입장이 지지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상원직 경쟁에서 그에게 패배의 고배를 마시게 할 가능성성이 질게 하였으며, 실제로 그는 그러한 결과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모르는 링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확신에 따라 행동했던 것입니다. 상원에의 길은 막혔지만, 이것이 그에게 대통령이 될 길을 열어 주게 되었습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님 역시 고결한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유타주 시다시에 있는 주립 사법 대학의 남부 지부를 관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학교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이 학교 재단이 요청한

기금을 입법부 의원들이 제공하도록 격려하게끔 주 정부가 그에게 협조를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편지에 답하면서 그는 “솔직하게 요청된 100,000불을 부담하는 것을 지지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주 정부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청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저는 그 문제를 심사숙고하였으며, 주 정부가 요청한 금액을 주의 대의원에게 부담시킬 떳떳한 입장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 정부가 100,000불을 삭감하여 54,000불로 결재해 주신다면 제가 성의를 다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거액을 그대로 요청하신다면 제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은 손을 떼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편지에 나타난 솔직함이 그가 여생 동안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면서 나타난 눈에 띄는 특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추천장에는 다른 사람이 받기를 바랐던 바가 담기지 않은 때가 많았으나 그의 솔직함이 그들의 신뢰를 얻기에 족하였으니, 이는 생각한 바를 솔직히 말하는 그를 그들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에이치 얀 이세, 젊은 루벤, 브리검 영 대학 출판사, 유타주 프로보, 113-14페이지)

우리가 모두 킴볼 대관장님과 태너 부대관장님과 조셉 에프 스미스, 에이브라햄 링컨,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와 같은 사람이 지녔던 고결함을 지녔다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신권 소유자인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고결한 성품에 대해 생각하고, 고결하게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

언덕위의 봉화처럼

버크 에이치 피터슨 감독
관리 감독관 제1보좌



나는 전세계에 있는 아론 신권 청소년을 직접 만나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히 하려고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고 하며, 명예와 위엄 있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 고 기꺼이 하며, 마땅히 보여야 할 모범이나 행해야 할 행동이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적인 청소년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외국에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해서도 그러한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오후 스테이크 부장단과의 모임을 마치려고 하는데 문에서 녹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님이 문을 열었으며, 이어서 그에게 전달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기 위해 접견이 필요했던 한 청년에 의해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단과의 모임을 마치자마자 나는 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젊은이를 안으로 들어 오게 하였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선교사로 봉사하겠다고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웃은 짐복 구겨져 있었으며, 수염이나 있었고,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손에는 이름모를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위해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내게로 다가 와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 나는 그의 눈을 주시해 보았습니다. 그는 좀 달랐습니다. 외모와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단정하지 못하고 급히 접견을 청하게 된 것을 사과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막 1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집에서 왔는데, 한 시간 동안 접견을 하고 다시 버스를 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그의 웃이 구겨졌으며, 수염이 자랐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담배 냄새도 그가 담배를 피웠기 때문이 아니라 버스 안에서 옮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가 손에 들고 온 책이 많이 읽어서 낡아진 몰몬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3년 전에 몰몬 친구를 사귀어 교회에 개종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다른 사람과는 달리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원한다면 허락하겠으나 그가 선교사로 나갈 경우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침례를 받았을 때 아버지는 약속대로 그를 집 밖으로 내쫓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젊은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를 찾아 갔습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혼자 고학을 해가며 학교를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2,000불을 저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무슨 일보다도 꼭 하고 싶은 일이니 꼭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일러 주었으며 이제 그는 주님의 종으로 세상에 나가 있는 굳건한 18,000명의 선교사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변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이 만류하여도 자기에게 기대되는 의로운 일이라면 이를 서슴치 않고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가는 길이 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한 길을 찾도록 도와 줄 친구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거의 다 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금년 학기에도 다수가 따르는 길이 옳지 못한데도 그 길을 따르기가 쉽다는 이유로 그 길을 따르

는 사람이 많습니다. 옳지 못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의로운 방법이 못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뒤덮는 대 전쟁, 다시 말해서 신권 형제와 사탄의 군대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죽어갑니다. 우리의 전상자가 나타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 전쟁에서 강한 자가 끝까지 살아 남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신권을 소유한 무사를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읍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나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주일날 영화를 보거나, 의설적이며 저속한 영화를 보는 것에 많은 사람이 친성을 할 때라도 단호히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라도 저속한 책이나 잡지나 영화, 이야기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일날 낚시질이나 수영을 가자는 제의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술이나 담배를 꼭 한 번만 들어 보라고 하는 권유를 뿌리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용감한 무사는 다른 많은 사람이 주일 아침 신권회에 나가며, 성찬식에 참석하며, 십일조를 바치며, 매일 기도를 드리며, 신학연구원에 나가는 일을 반대할 때 이를 단호히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이 용감한 청년은 선교사로 가는 일을 모두가 반대할 때 단호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 사탄의 파괴 사업에 동조하는 부류의 인간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쉽게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읍니다. 옳지 못한 일이 제의되었을 때 여러분이 이를 단호히 거부하면 그들은 용기를 잃고 맙니다.

지난 봄 학기 말에 이곳 서부 지역에서는 고등 학교 졸업식이 시작되었읍니다. 졸업생들을 위한 파티가 여러

곳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좋지 못한 파티가 있었읍니다. 이 파티에서는 몇 편의 의설적인 영화가 준비되어 있었읍니다. 사전에 그 영화의 내용을 모르고 있던 말일성도 젊은이들이 그 파티에 참석하였읍니다. 영화가 시작되면서 저속한 말이 나오자 이들 중 몇몇은 자리를 떠났으나 몇 명은 그대로 남아서 영화를 보았읍니다.

밖으로 나간 몇몇 젊은이들은 지금 막 파티에 도착한 친구들을 만났읍니다. 그들은 친구에게 그 영화의 성격을 설명하고 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읍니다. 일부는 그래도 자리를 떠났으나 나머지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집으로 들어 가 사탄의 힘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읍니다. 그렇읍니다. 주님 앞에서 의로운 일이라면 무엇이고 해내는 사람이 있읍니다. 신권을 소유한 것이 참으로 특별하고 중요하며 영예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일을 할 때 조소를 당하는 일을 참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많은 사람과는 달리 행동하는 것이 별로 인기가 있는 일이 아닐 경우가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 나가시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강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와드 감독단과 지부장단에 계시는 형제님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정 이외에서 갖는 가장 크고 중요한 책임은 아론 신권에 관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읍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무런 변명없이 이행하여, 와드나 지부의 청소년과 함께 교회 봉사를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들의 관리 하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들에 대해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헬라맨이 이끈 2,000명의 용감한 암몬 백성의 아들들과 쉽게 비교되는 영적인 태도와 용기를 지니고 있는 점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읍니다. 우리는 매주말 교회의 여러 스테이크에서 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도처에서 그러한 감독단을 보게 되며, 그들이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지도자에게 지도자로서의 부름에 따른 일을 위임하며, 신권 형제들을 각 가정에 파견하는 일에 앞장 서서 맡게 하는 것을 보아서도 그들이 자기가 맡은 청지기의 직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가정복음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권 활동의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들이 주님께 아론 신권 정원회 회장단을 선택하게 하는 점으로도 그들을 알 수 있읍니다. 감독단은 교리와 성약 9편을 읽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심사숙고한 끝에 주님 앞에 정원회를 맡을 역원의 이름을 대고 먼저 그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이 사실을 부모나 청소년에게 전합니다.

이 훌륭하신 감독단은 정원회 회장단이 위엄있는 태도로 청년을 부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전화로나 복도에서 혹은 현관에서가 아니라 와드 아론 신권 회장단이 있는 감독실에서 이를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독단은 합당하게 부름을 받고 훈련된 아론 신권 정원회가 청소년의 생애와 교회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깨닫어 볼 사람임을 알 수 있읍니다. 형제 여러분, 청소년의 관리 역원인 와드 감독단에 의해서 합당한 신권 원리를 교육받은 이들이 10년이나 20년 후에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지도자로서 새로운 세대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매주 합당한 신권 원리로 이 젊은이들을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이 감독단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요일에는 언제나 젊은이와 함께 참석합니다. 이 감독단은 신권회 시간에는 아론 신권 정원회 회장으로부터 “회장님”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책임이 예외없이 아론 신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감독단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은 미룰 수 있으나 아론 신권과 청녀에 관한 일은 절대보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이 성스러운 청지기 직분에 대해 주님 앞에서 보고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스테이크 아론 신권 위원회 의장이 스테이크 부장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을 관찰해 보는 일도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위원회의 의장직을 맡지만 이 일을 맡는 보좌나 고등 평의원을 해임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이 위원회 사업에 보다 큰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그는 스테이크 위원회의 다른 훌륭한 형제들과 진밀한 유대를 갖고 스테이크의 아론 신권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지도자와 진밀한 유대를 갖고 아들이 있는 가장 을 돋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스테이크 부장입니다. 그는 잘 훈련된 장로 정원회 회장과 집사 정원회 회장과 가장이 소년의 삶을 위해 사탄과 싸우는 강한 협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크 부장은 청년과 마찬가지로 청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스테이크 청녀 책임자가 청녀 문제와 관련해서 직속 관리 역원이 스테이크 부장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현재보다도 더욱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권은 구세주가 계셨다면 하셨을 일을 그의 방법대로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입니다. 우리의 권능

은 구세주가 우리와 같은 부름과 책임을 가졌을 때 행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로 국한됩니다. 구세주께서 집사 정원회 회장일 때 하셨을 일이나 교사를 맡으셨을 때 하셨을 일, 그가 제사로서 선교 사업을 준비하셨을 때 하셨을 일, 혹은 장로 정원회 회장이나 감독이나 보좌나 스테이크 부장을 맡으셨을 때 하셨을 일을 우리가 행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권이 구세주가 우리의 가족이었을 때 그가 아버지나 아들이나 형제로서 하셨을 일을 우리가 행하는 권능이라는 점입니다.

형제 여러분, 신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생태도 우리의 생활 태도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영에 인도되기를 배울 때 우리가 지닌 신권의 권능은 보다 나은 삶으로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 주며, 젊은이와 가장과 어머니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줍니다.

흔한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도 인간 중에는 거인이 있습니다. 그곳에 평화를 안겨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도치는 물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덕 위의 봉화나 폭풍우 속의 등대와 같은 생활 태도를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희망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밝은 빛과 깨끗한 신호등이 온전한 도구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영위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하게 해주시길 빕니다. 나는 여러분께 하나님님이 살아 계시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나는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권을 존중할 때 축복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여 간구합니다. 아멘. ■



두명의 자매



우리의 걸음의 폭을 넓하자

예언자께서는 우리의 걸음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은 매주 5가정의 가족과 함께 복음을 토론을 갖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2백 명의 선교사가 두 명씩 서로 동반자가 되어 한국에서 매주 500 가정에 복음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40가정에 1가정씩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개종하도록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의 선교사가 1년(52주) 동안 그들의 목표를 이행하게 된다면 26,000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26,000가정을 40가정으로 나누면 650가정이 되고, 결국 매주 5가정에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일년에 650명의 개종자가 나오게 되는 셈입니다.

모든 회원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사 방문을 5가정씩 더한다면 어떨까요? 와드나 지부 지도자가 매주 교회 일로 2시간을 더 바친다면 어떨까요? 모든 가정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가정의 밥을 갖는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국의 모든 회원이 1975년에는 모두 완전한 십일조를 바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 가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왜 할 수 없습니까?

교회의 모든 회원은 다 말은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우리가 말은 책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사를 통해서 일을 수 있다고 가르치신 큰 기쁨을 안겨 주십니다.

여러분의 선교부장으로서 나는 우리의 예언자이신 스펠서 더블류 캠볼 대관장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바를 여러분께서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룹시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므로 최대로 선용해야 하겠습니다. 선교부장 유진 피틀

